



2014 전국 학생인권침해 어워즈 ?

상 받고도 부끄러울지이다!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발표회 진행순서

일시: 2014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12시
 장소: [서울 서대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시간	프로그램
11:00~11:05 (5분)	여는시간
11:05~11:20 (15분)	실태조사 결과 분석/발표
11:20~11:35 (15분)	지역별 학생인권보장 3대과제 제안 "최소한 이 정도는!"
11:35~11:50 (15분)	질의응답
11:50~12:00 (10분)	"최고의 학생인권침해 지역은?" <학생인권침해 '우수' 5대 지역 시상식> 퍼포먼스

■ 자료집 차례 ■

I. 조사의 목적	1p
II. 조사 개요	1p
III. 조사 결과 요약	3p
IV. 조사 결과 분석	
1. 학생인권 침해 실태	5p
2. 학생인권 침해 지역별 순위와 격차	19p
3. 문항별 상관관계로 본 학생인권 실태 심층 분석	29p
V.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별 3대 우선과제	39p
VI. 조사 결과의 시사점	52p
[첨부자료 1] 지역별 학생인권 침해 항목별 분포도	53p
[첨부자료 2] 실태조사 설문지	53p

I. 조사의 목적

전국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인권.교육.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2013년 <전국 학생인권.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014년에는 지역별 학생인권의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의 핵심 목표는 ▲체벌(폭력) ▲두발.복장규제 ▲강제 야자.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의제에만 집중하여 지역간 격차를 판별해냄과 동시에 각 지역별 핵심 인권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전국의 어느 지역이고 학생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나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고자 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정책이 마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핵심 인권의제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번 조사는 학생인권 침해가 빈발하는 중.고등학교에만 한정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2014년에는 경남의 진주외고를 비롯하여 기숙사학교 안에서 학생간 폭력, 선후배 폭력으로 인한 사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큰 우려를 낳았다. 기숙사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는 은폐되기 쉬울 뿐 아니라, 학교가 학생들을 훈육.통제하는 방식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질문 목록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각 지역 교육청에 학생인권 현주소와 핵심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른바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신임 교육감의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해마다 학생인권 수준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목표도 아울러 갖고 있다.

안타깝게도 세종시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조사 결과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I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모 집 단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조사기간	2014년 9월 15일~ 10월 4일
응답자수	5845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임의 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2014년 9월15일부터 10월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5845명이 설

문조사에 응답했다.

2. 분석도구 : SPSS Statics 22

3. 표본의 특성

※ 전체 응답수와 집단별 합계의 오차는 무응답 수치임.

		응답자수	%
전체		5845	100%
학교	중학교	2615	44.7%
	공립인문고	1128	19.3%
	사립인문고	903	15.4%
	자율형공립고	331	5.7%
	자율형사립고	87	1.5%
	특성화고(전문계고)	734	12.6%
	특목고	46	0.8%
	무응답	1	0.0%
집단 합계		5845	100%
지역	강원	344	5.9%
	경기	284	4.9%
	경남	455	7.8%
	경북	188	3.2%
	광주	330	5.6%
	대구	385	6.6%
	대전	272	4.7%
	부산	422	7.2%
	서울	516	8.8%
	울산	192	3.3%
	인천	453	7.8%
	전남	691	11.8%
	전북	290	5.0%
	제주	276	4.7%
	충남	453	7.8%
	충북	294	5.0%
	집단 합계		5845

Ⅲ. 조사 결과 요약

- 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와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체벌, 두발·복장단속, 강제 학습, 학생 의견 묵살 등과 같이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정책을 부분적으로라도 시도한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해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운동 경험이 거의 없었거나 교육청이나 의회에 의해 학생인권정책이 가로막힌 지역의 경우, 학생인권 침해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교칙 개정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학생의 삶의 질을 가르는 중요한 지렛대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학생인권 문제와 학교생활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억압, 상벌점제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의 경우, 모든 지역의 경험률이 대동소이했다.
- 벌점제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는 기준이 고무줄처럼 그 때 그 때 다를 뿐더러, 사소한 잘못과 실수에도 벌점을 준다는 응답이 많았다. 벌점제의 남용 및 자의적 운용 등 반인권적, 비교육적 효과를 낳는 피해가 여전함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참담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와 같이 학교가 차별적, 억압적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 수가 절반을 넘어섰다.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움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 각 항목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인권침해를 자주 경험할수록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학생일수록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해 인권침해 경험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감정에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긍정적 답을 내놓았다. 학생들의 이와 같은 의견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확인된 바 있다. 학생들 대다수가 우리 사회에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우리 사회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침해 항목별로 지역별 순위와 격차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지역

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우선 과제'를 함께 뽑았다. 교육청이 정책적 목표를 갖고 단시간 안에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할 '핵심업무'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야말로 학생들에 대한 의무이자 이번 조사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IV. 조사결과 분석

1. 학생인권 침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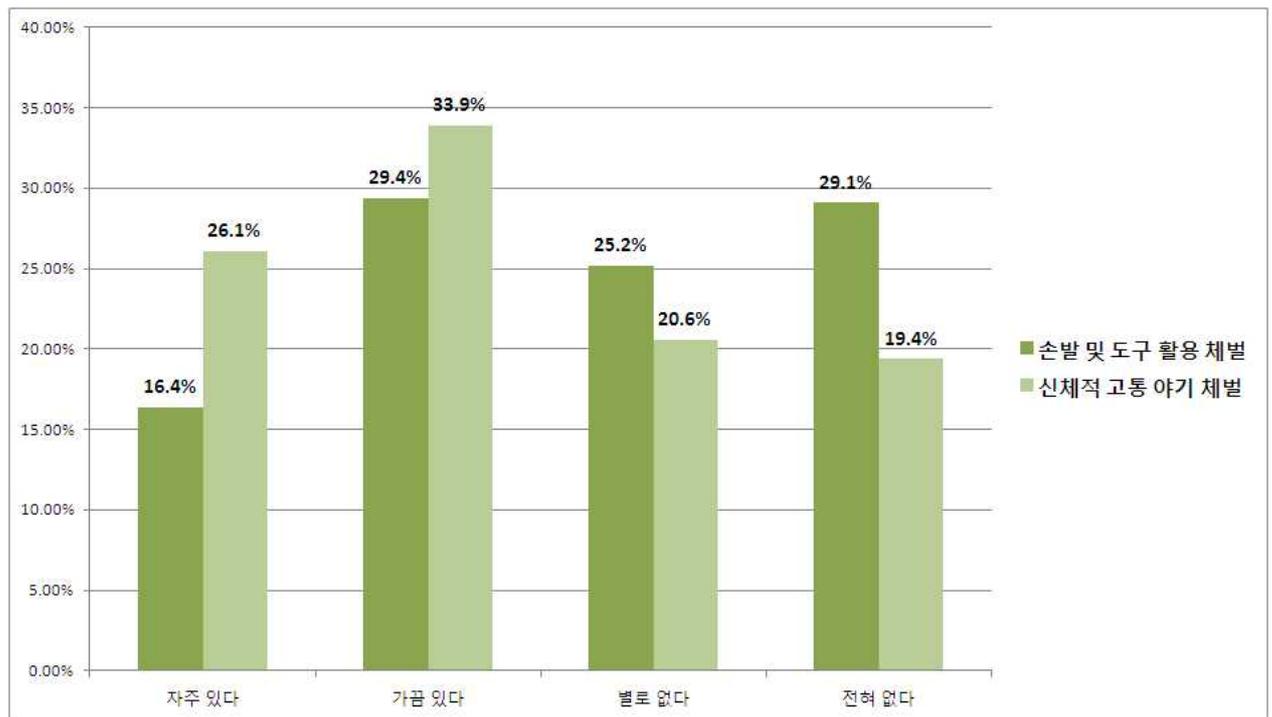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학교생활에서 직접 또는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던져 학생인권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1) 체벌과 언어폭력

■ 체벌 유형별 경험 - “둘 중 하나는 맞거나 폭력을 목격한다”

체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물론, 고문방지협약에서는 '고문'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형태의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서도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폭력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한 폭력에 '폭력'이 아닌 '체벌'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붙여 관용적으로 대하고 있다. 체벌은 '벌'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폭력이자, 학생이라는 집단을 '맞아도 되는 존재'로 분류하는 차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학교현장에 체벌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체벌 경험률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957	1716	1470	1698	5841
백분율	16.4%	29.4%	25.2%	29.1%	100.0%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525	1979	1202	1132	5838
백분율	26.1%	33.9%	20.6%	19.4%	100.0%

-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교사에 의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의 경우,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무려 45.8%에 이르렀다. 학생 두 명 중 한 명은 학교에서 맞거나 폭력을 목격하고 사는 셈이다. '앉았다 일어서기' 등 기합성 체벌의 경우, 자주 또한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로 올라섰다. 손발이나 도구를 직접 활용한 체벌 이외의 체벌은 '교육벌'이라는 이름으로 더더욱 관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학교현장에서 체벌을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령에 의해 금지된 체벌조차 학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학생인권 많이 보장되는 편'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
- 직접 당한 경험과 아울러 목격한 경험도 함께 물은 이유는 체벌이 피해학생 당사자에게만 모욕감과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목격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는 '전시성 체벌'은 잘못하면 때려도 괜찮다, 맞을 짓이 있다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을 길러주기에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 언어폭력 경험 - “절반 가까이가 언어폭력에 노출돼 있다”

교사의 언어폭력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898	1585	1798	1550	5831
백분율	15.4%	27.2%	30.8%	2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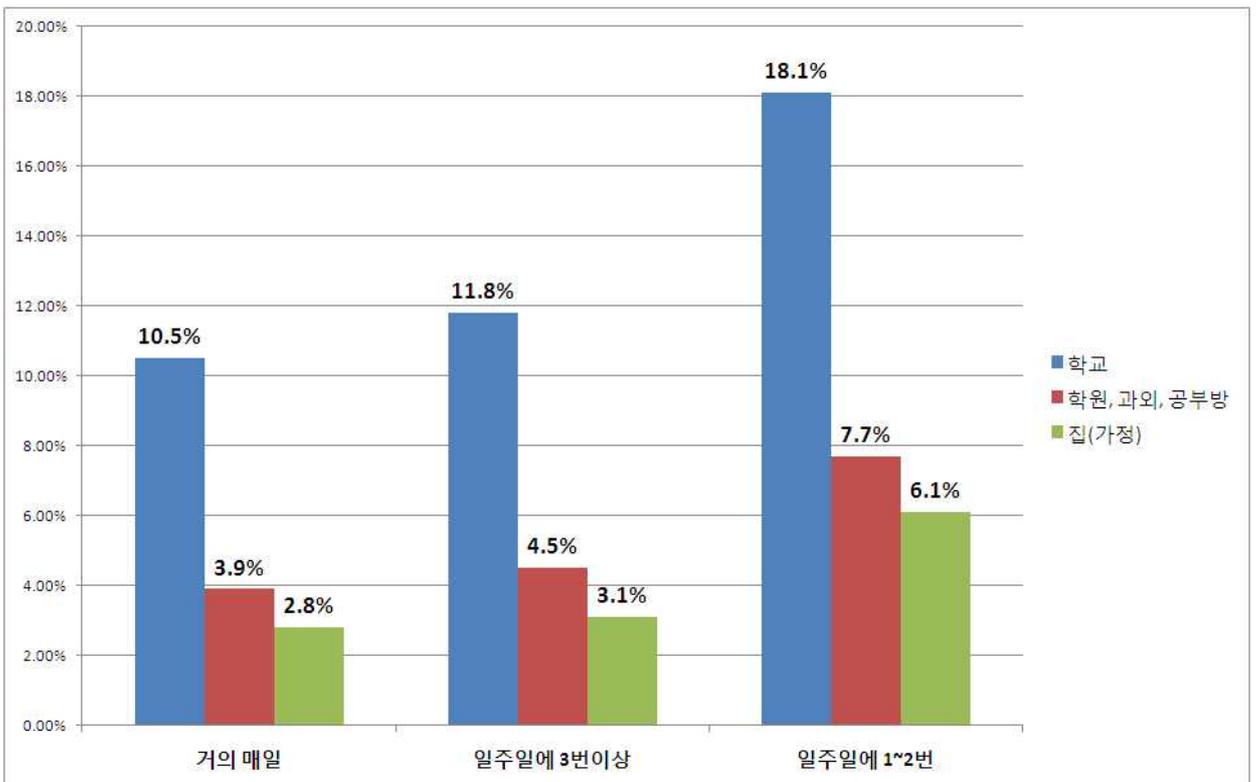
-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42.6%가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고 답했다. 언어폭력에는 욕설이나 놀림, 저주나 증오심이 담긴 말, 부모 비난 등이 포함되는데, 체벌과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폭력이다.

■ 체벌.언어폭력의 장소별 빈도 - “절반 가까이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당한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기합 포함)이나 언어폭력(욕설, 막말)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에 3번이상	일주일에 1~2번	한달에 1~2번	아주 가끔	전혀 없다	총계
빈도	610	687	1052	694	1403	1367	5813
백분율	10.5%	11.8%	18.1%	11.9%	24.1%	23.5%	100.0%

학원, 과외, 공부방 등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기합 포함)이나 언어폭력(욕설, 막말)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 에 3번이상	일주일 에 1~2번	한달 에 1~2번	아주 가끔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26	262	449	494	1141	3233	5805
백분율	3.9%	4.5%	7.7%	8.5%	19.7%	55.7%	100.0%

집에서 보호자들에 의해 체벌(기합 포함)이나 언어폭력(욕설, 막말)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 에 3번이상	일주일 에 1~2번	한달 에 1~2번	아주 가끔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60	180	354	531	1423	3153	5801
백분율	2.8%	3.1%	6.1%	9.2%	24.5%	54.4%	100.0%



<그림 2> 체벌 또는 언어폭력 경험 장소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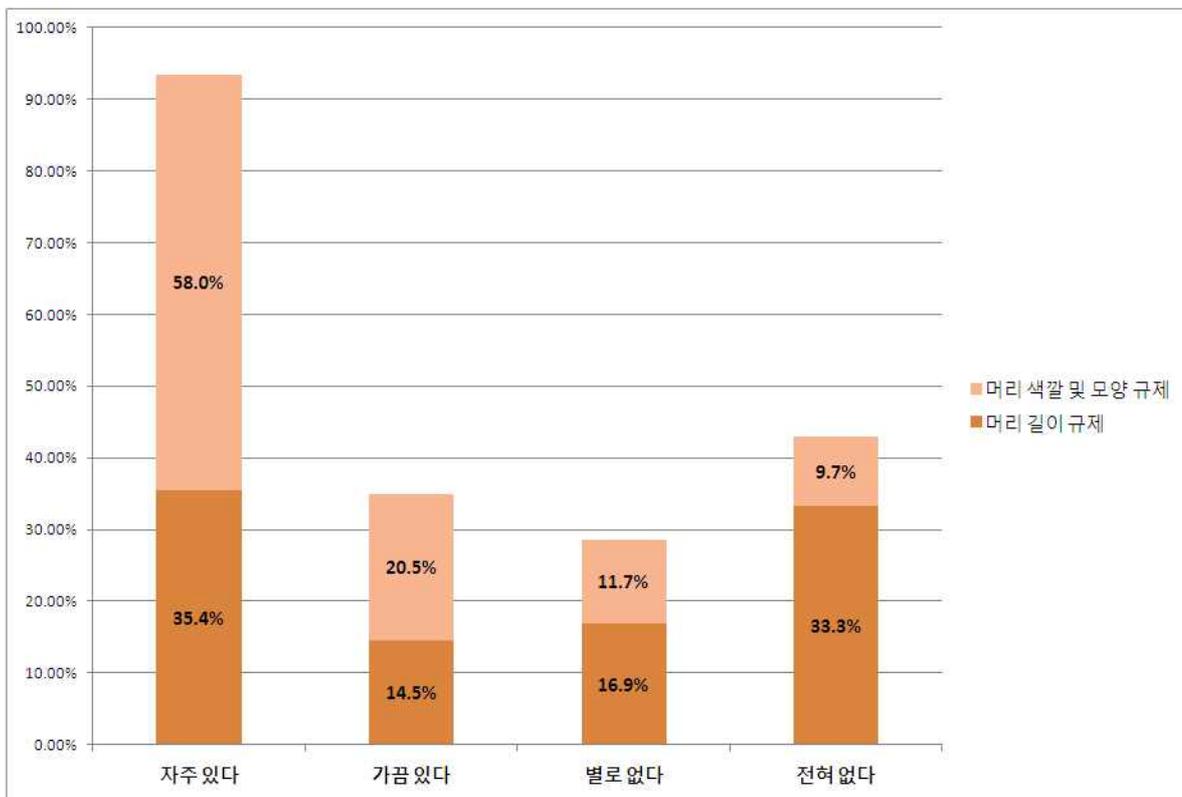
-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최근 1년간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를 살펴 보았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들만 살펴보면,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학교인 경우는 40.4%, 학원 등지인 경우는 16.1%, 가정인 경우는 12%이다. 집에서는 학생 열 명 중 한 명 꼴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데 반해, 학교에서는 무려 절반 가까이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공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폭력이 가장 잦게 발생했다.

2) 두발.복장 규제

체벌과 함께 학생인권 의제의 대표격인 두발.복장 규제는 학생의 인격권과 개성 실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 가운데 하나도 두발.복장 규제를 포함한 엄격한 규율이다. 흔히 두발규제 등 학생의 신체와 생활양식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학업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난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92.7%는 두발규제가 학업 성적 향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 등 두발.복장 규제를 정당화하는 다른 논리들도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두발.복장의 자유란 학생들이 모두 머리를 기르게 하자거나 염색을 하도록 하자거나 사복을 입도록 하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복장을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성 있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두발.복장 규제는 특정 머리 모양이나 색깔, 복장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여전히 두발.복장 규제는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두발 규제 경험 - “둘 중 하나는 두발길이까지 제한당한다”



<그림 3> 두발 규제 경험률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062	845	983	1943	5833
백분율	35.4%	14.5%	16.9%	33.3%	100.0%

머리 색깔이나 모양(염색 등)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3384	1198	685	566	5833
백분율	58.0%	20.5%	11.7%	9.7%	100.0%

- 두발 규제의 경우,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규제에 따르지 않는 학생 수의 증가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고 있다. 특히 염색이나 파머 등은 규제하지만 두발길이에 대한 제한은 많이 풀렸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 두발길이에 대한 규제마저 경험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에 이르는 49.9%로 집계됐고,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은 78.5%에 달했다.

■ 복장 규제 경험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575	1425	945	891	5836
백분율	44.1%	24.4%	16.2%	15.3%	100.0%

- 복장 규제의 경우에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이 44.1%, 가끔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까지 합치면 무려 68.5%에 이르러 복장 단속이 두발 규제에 비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정된 교복 착용 이외에 양말 색깔이나 외투 착용 여부까지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학생의 신체와 생활양식에 대한 과도한 통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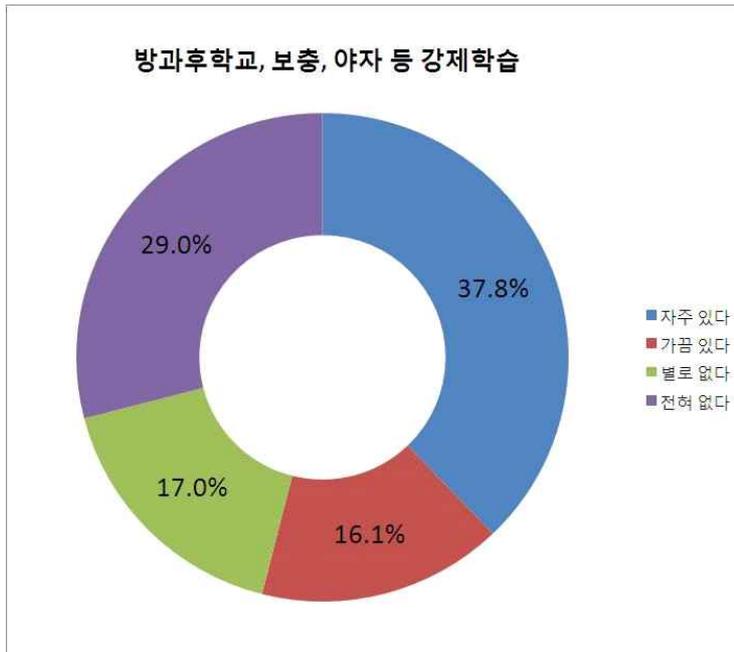
3) 강제 학습 - “절반 이상이 강제학습에 시달린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학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는 학습부담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휴식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경험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기에도 중대한 인권침해라 볼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연거푸 천명해왔음에도, 강제학습이 교육현장에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2206	940	994	1692	5832
백분율	37.8%	16.1%	17.0%	29.0%	100.0%

- 조사 결과,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 야간학습 등에 대한 강제가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53.9%에 이르러 절반 이상이 '강제노동'과 다름없는 강제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교과외 교육활동의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학습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많은 학교에서 학생이 아닌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꼼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강제학습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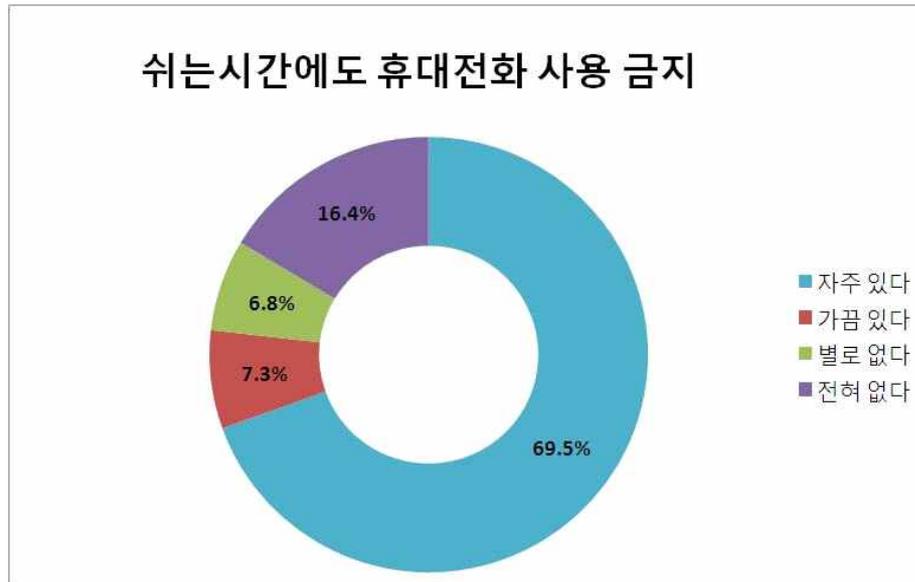
4) 휴대전화 사용 규제 - “셋 중 둘 이상이 자유시간에도 사용 못한다”

누구에게도 그러하듯, 학생에게도 휴대전화는 통신 수단, 소통의 도구, 호신 기능, 학습 보조 도구, 기록 매체, 놀이도구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다. 그런데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지역과 학교마다 천차만별의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 학급단위의 자체 규칙에만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전혀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다. 학습 분위기 훼손이나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이 제한의 사유로 언급되곤 한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적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나온 바 있다.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업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4052	423	398	956	5829
백분율	69.5%	7.3%	6.8%	16.4%	100.0%

○ 그럼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조차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한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한 학생이

무려 69.5%에 달했고,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까지 합하면 76.8%에 이른다. 대다수 학교가 소지 자체를 불허하거나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교사가 보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서 누구의 통제도 없이 자유롭게 쉼과 놀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어야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이 짧은 휴식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찾고 취미생활을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휴대전화 규제를 정당화하는 주요 논리가 '수업 방해'임에 비추어, 수업과 관련 없는 학생의 자유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 자유시간 휴대전화 사용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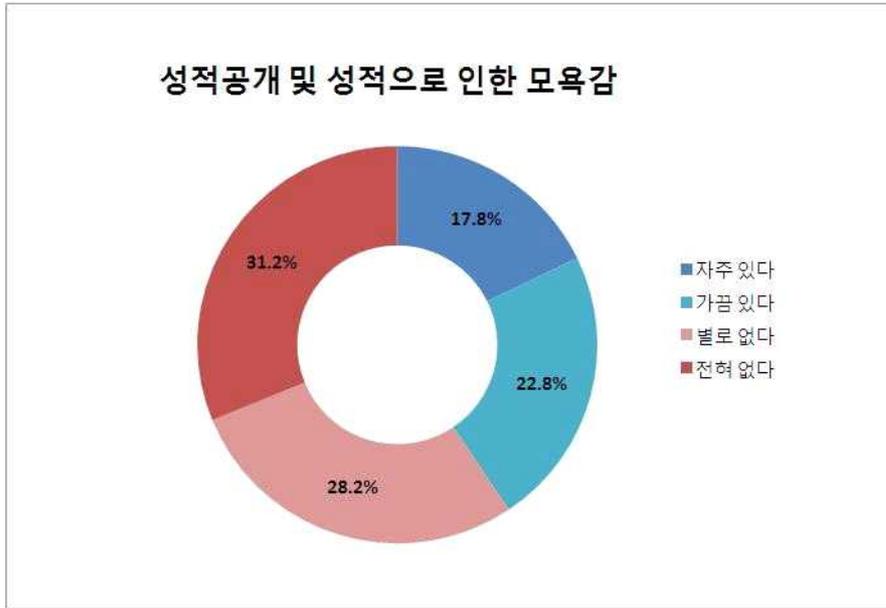
5) 성적 공개 및 모욕 - “절반 가까이가 성적 때문에 모욕당한다”

학생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정서적으로 감당할 만큼의 무게와 분위기 속에서 배움을 누릴 때 학습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학교는 학생들 각자가 가진 차이와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차별 경험 가운데 하나가 성적에 의한 차별 경험이다.

성적(점수, 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039	1328	1645	1819	5831
백분율	17.8%	22.8%	28.2%	31.2%	100.0%

- 지난 1년간 성적(점수/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0.6%의 학생이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했다. 성적 공개에는 대개 성적이 낮은 학생을 모욕하는 언행이 동반되고, 그 결과 칭찬받은 학생에게는 우월감이나 초조함,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열등감이나 수치심, 좌절감 등을 느끼게 만든다. 성적 공개는 개인의 사적 정보를 일반에 유포하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적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경쟁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 성적 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한 모욕감 경험률

6)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학생은 학교의 구성원이자 배움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운영 전반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마땅한 책임일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서도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학생 참여권은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 반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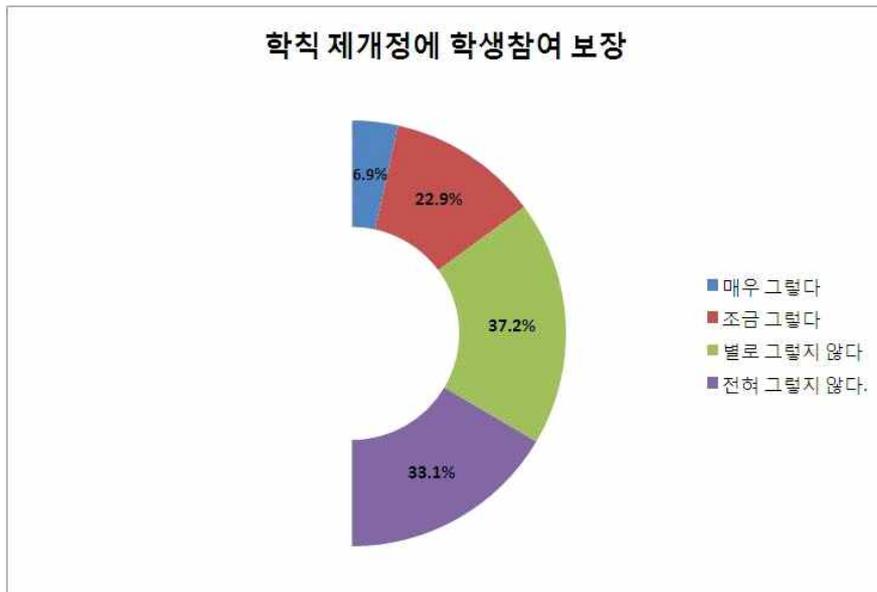
■ 학칙 제.개정과 학생 참여 - “셋 중 둘, 학생의견 묵살된다”

학교의 교칙(학칙)은 학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제.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 4항에서도 “학교의 장은 (...)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생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교칙을 고치거나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401	1335	2172	1931	5839
백분율	6.9%	22.9%	37.2%	33.1%	100.0%

- 교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3.1%,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37.2%에 이르러 70.3%에 달하는 학생이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규칙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대개 교칙 제.개정 과정은 학교장의 교육관, 교사 의견,

- 일부 학부모의 의견에 의해 주도된다. 비민주적 교칙 제.개정은 교칙 위반을 부른다.
-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칙(학칙)을 통해 두발.복장 규제를 할 수 있되, 학생 의견을 수렴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절차적 규정만으로 두발.복장 규제를 정당화해온 교육부의 논리가 얼마나 옳은지를 알 수 있다.



<그림 7>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참여 보장 경험

■ 의사 표현과 반영 - “절반 이상, 의견 말할 때 두렵다”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학생은 배움의 과정에 있기에,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그를 통해 성장할 기회가 더욱 중요하다.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정반대로 그냥 듣는 척만 해서도 곤란하다.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의미 있게 수용되고 변화를 성취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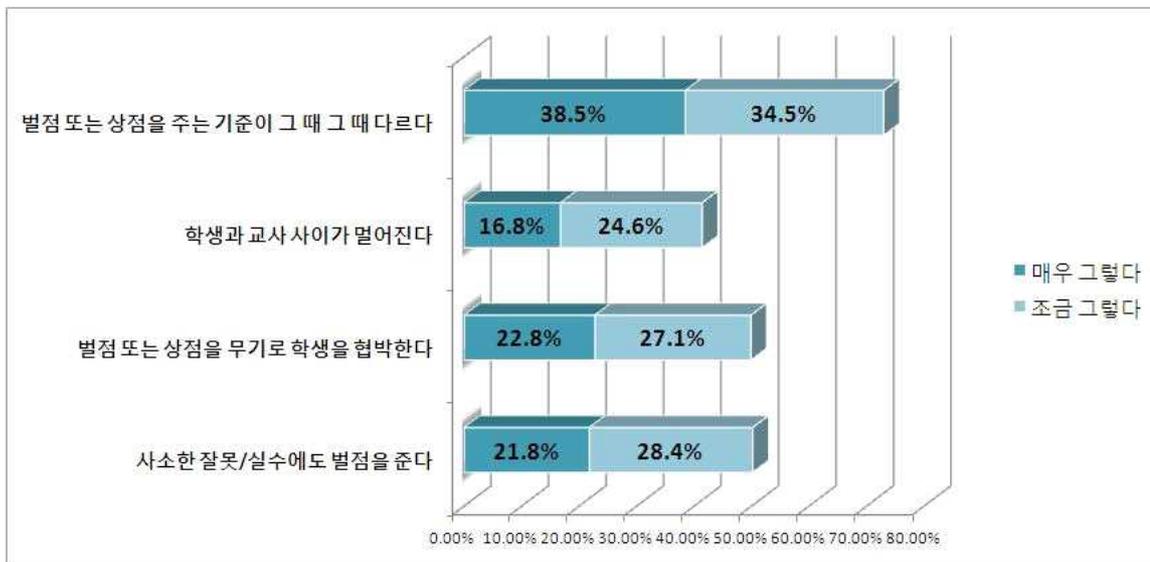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334	1247	2302	1956	5839
백분율	5.7%	21.4%	39.4%	33.5%	100.0%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428	1948	1525	941	5842
백분율	24.4%	33.3%	26.1%	16.1%	100.0%

○ 학칙을 제외하고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말할 때 잘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33.5%,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까지 합하면 72.9%에 달했다. 학칙을 둘러싸고만 학생 배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 전체에서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답한 학생의 경우도 매우 그렇다가 24.4%, 조금 그렇다가 33.3%로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침묵하는 학생 역시 57.7%에 이르렀다.

7) 상벌점제 운영 현황과 폐해 - “셋 중 둘, 벌점 기준이 고무줄이다”

교육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체벌의 대안으로 권장하면서 다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벌점제의 운영 현황과 폐해에 대해 조사했다. 상벌점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점을 부여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다'는 것이 도입 명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벌점제와 체벌이 학생 통제수단으로 동시에 이루어져 체벌 대체 효과는 약한 반면, 비교육적 효과는 오히려 커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도 대표적인 폐해를 묻는 질문에 다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해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상벌점제 폐해

사소한 잘못/실수에도 벌점을 준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275	1658	1791	1115	5839
백분율	21.8%	28.4%	30.7%	19.1%	100.0%

벌점 또는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330	1580	1456	1474	5840
백분율	22.8%	27.1%	24.9%	25.2%	100.0%

학생과 교사 사이가 멀어진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979	1435	2016	1409	5839
백분율	16.8%	24.6%	34.5%	24.1%	100.0%

별점 또는 상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2245	2011	846	732	5834
백분율	38.5%	34.5%	14.5%	12.5%	100.0%

○ 별점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별점제의 폐해는 더 잘 드러난다.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별점이 부과된다고 답한 학생이 50.2%, 별점이나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학생이 49.9%, 교사와 학생 사이가 멀어진다고 답한 학생이 41.4%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폐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낀 상별점제의 폐해는 별점 기준의 모호성이었다. 교사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별점이나 상점을 주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8.5%, 조금 그렇다고 답한 학생이 34.5%로 무려 73%에 달하는 학생이 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별점은 주로 수업태도 불량, 두발.복장규정 위반, 지각이나 결석, 교사 지도 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 주어진다. 문제가 되는 규정을 바꾸거나 학생의 학습 흥미를 불러일으키거나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할 장면들에 별점만이 비교육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셈이다.

8) 기숙사 안 인권침해 - “하교 후에도 자습강요, 기합성 폭력 등에 시달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은 총 276명으로 응답자의 4.7%에 해당했다. 수업이 끝난 이후 기숙사 안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함 직한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해 보았더니 상당수 학생이 기숙사라는 생활공간 안에서 ‘집단생활’과 ‘학습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한 관리.통제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현재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빈도	276	5555	14	5845
백분율	4.7%	95.0%	0.2%	100%

기숙사 안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기숙사 교사의 체벌	기숙사 교사의 기합	선후배 사이의 폭력/기합	선후배 사이의 성폭력	소지품 검사	자습강요	기타	총계
빈도	53	85	55	7	99	126	26	451

퍼센트	11.8%	18.8%	12.2%	1.6%	22.0%	27.9%	5.8%	100.0%
-----	-------	-------	-------	------	-------	-------	------	--------

기숙사 생활 학생 중 인권침해 경험률							
	기숙사 교사의 체벌	기숙사 교사의 기합	선후배 사이의 폭력/기합	선후배 사이의 성폭력	소지품 검사	자습강요	기타
기숙사 생활자 중 경험비율	19.2%	30.8%	19.9%	2.5%	35.9%	45.7%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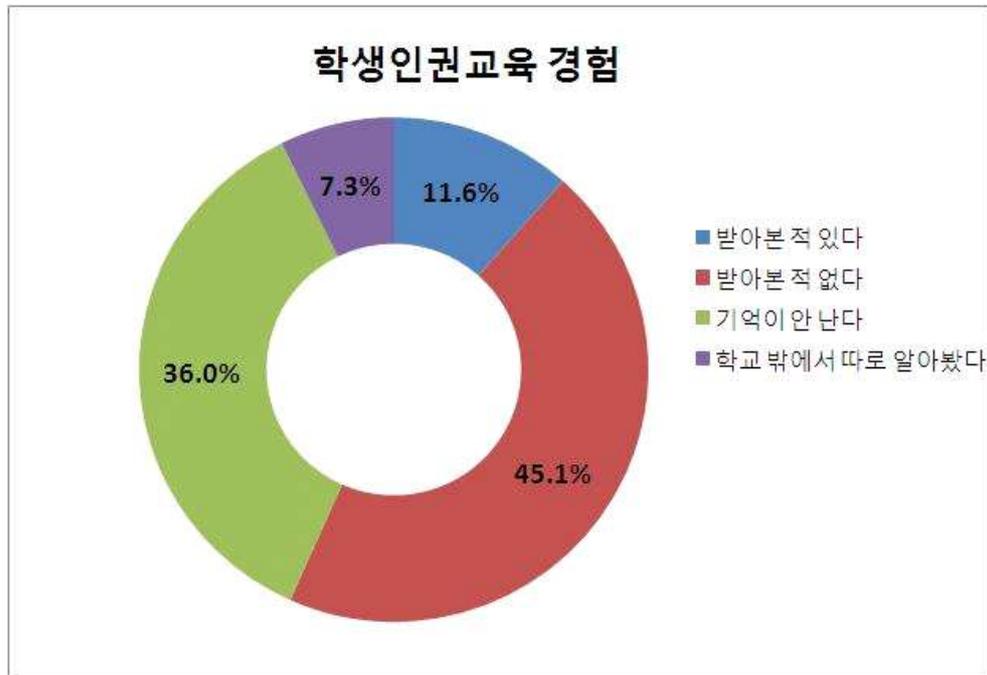
○ 기숙사 안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 물었더니(중복응답) ▲자습 강요(27.9%) ▲소지품 검사(22.0%) ▲교사에 의한 기합성 폭력(18.8%) 등의 순으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후배 사이의 폭력이나 기합, 성폭력 발생률도 각각 12.2%와 1.6%로 조사돼 학생간 폭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생활자 가운데 유형별 인권침해 경험률을 다시 살펴보았더니 ▲자습을 강요당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이 45.7%로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소지품 검사는 35.9% ▲기숙사 교사에 의한 기합성 폭력은 30.8% ▲선후배 사이의 폭력이나 기합은 19.9% ▲기숙사교사에 의한 체벌도 1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숙사는 고된 학교생활이 끝난 이후 하루를 정리하고 개인적 시간을 갖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강압적 규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학생의 인권은 교문은 물론, 기숙사 앞에서도 멈춰서는 안 된다. 기숙사 안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폭력이나 통제를 멈추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9) 권리를 알 권리, 학생인권교육 경험 - “열 중 하나만 받아봤다”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침해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 권리는 권리를 위한 권리에 해당한다. 학생들 역시 자신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이 가능한지, 권리 회복을 요청할 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수는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와 지식에서 배제되어 있다.

학생인권의 뜻, 내용, 학생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 학교에서 배운 경험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학교 밖에서 따로 알아봤다	총계
빈도	675	2628	2094	427	5824
백분율	11.6%	45.1%	36.0%	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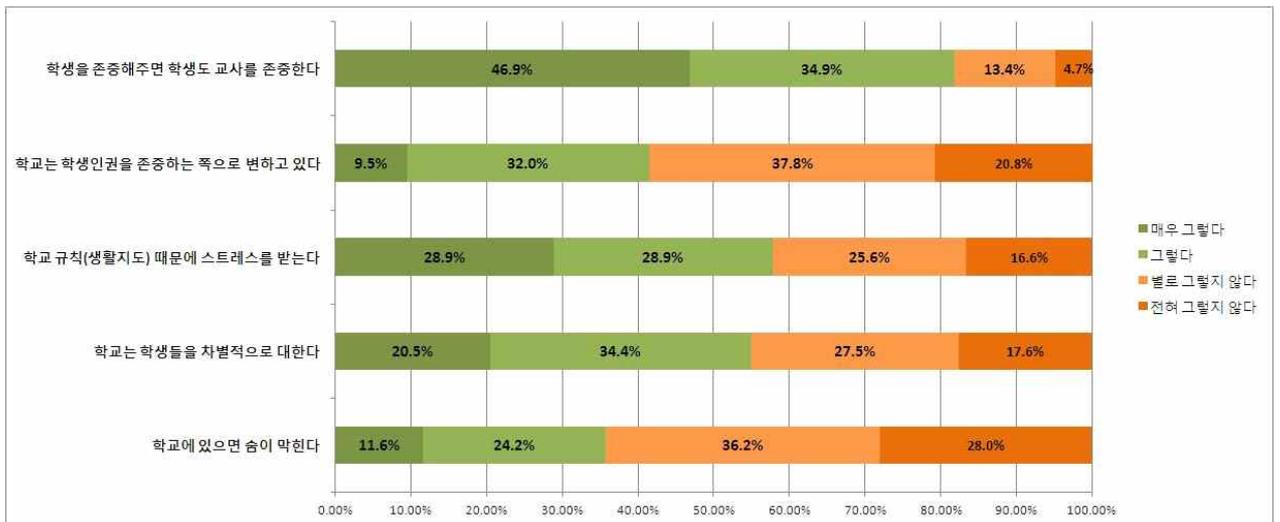
○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 경험이 아니라,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고작 11.6%에 불과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한 학생도 36.0%에 이르러 인권교육의 경험 자체가 없거나 있었더라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따로 알아봤다.’고 답한 학생이 7.3%에 불과한 점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학교생활로 인한 부담도 크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에 스스로 자기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이들이 적은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그림 9> 학생인권교육 경험률

1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느끼고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문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림 10>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678	1411	2111	1634	5834
백분율	11.6%	24.2%	36.2%	28.0%	100.0%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197	2006	1605	1024	5832
백분율	20.5%	34.4%	27.5%	17.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1684	1687	1493	968	5832
백분율	28.9%	28.9%	25.6%	16.6%	100.0%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학생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553	1864	2202	1214	5833
백분율	9.5%	32.0%	37.8%	20.8%	100.0%

학생을 존중해주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빈도	2734	2038	784	276	5832
백분율	46.9%	34.9%	13.4%	4.7%	100.0%

-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한 학생은 '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합해 35.8%로, 셋 중 하나 정도가 학교생활을 숨 막힐 정도로 힘겨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학생을 다양한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한다고 답한 학생도 54.9%에 달해 절반 이상이 학교의 불공정성과 부당대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을 포함한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학생도 57.8%에 달했다. 학교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고통과 압박의 장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살펴본 학생인권침해 경험이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 그럼에도 학교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학교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이 58.6%에 이른다. 학생인권조례가 몇몇 지역에서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인권이 신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학생도 교사를 존중한다'고 답한 학생이 81.8%로 압도적 다수에 이른다는 결과를 학교와 사회는 뼈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 학생인권침해 지역별 순위와 격차

대표적인 인권침해 항목별로 지역별 순위와 격차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자주 있다'와 '가끔 있다'를 합산한 비율로 순위를 매겼다. 지역별 임의 할당 방식의 조사이고 지역별 응답률에 차이가 있어 순위의 구분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각 지역별 특색을 살펴보기에는 충분하다.

1) 체벌/언어폭력 '우수' 다발 지역

순위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앞드려뻥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교사의 언어폭력
1위	대전(61.8%)	경북(77.1%) 울산(77.1%)	대전(54.0%)
2위	경북(59.6%)		경북(53.2%)
3위	울산(58.3%)	대전(76.1%)	부산(51.7%)
4위	전남(56.5%)	부산(69.0%)	울산(51.0%)
5위	경남(54.5%)	충북(68.4%)	충북(47.6%)
6위	부산(54.3%)	충남(68.3%)	광주(47.3%)
7위	충북(50.3%)	전남(68.0%)	전남(45.2%)
8위	광주(47.0%)	인천(64.9%)	경남(43.5%)
9위	인천(45.5%)	경남(63.3%)	전북(43.3%)
10위	대구(44.4%)	대구(61.8%)	경기(42.3%)
11위	제주(44.0%)	전북(58.6%)	인천(42.2%)
12위	전북(42.1%)	광주(51.5%)	충남(38.7%)
13위	충남(38.6%)	강원(44.0%)	서울(38.2%)
14위	서울(29.1%)	경기(42.6%)	강원(34.7%)
15위	강원(27.3%)	서울(39.7%)	대구(32.3%)
16위	경기(25.7%)	제주(36.2%)	제주(24.4%)

- 교사에 의한 신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대전→경북→울산→전남→경남→부산→충북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순위부터 7순위까지 해당하는 지역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체벌을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고 답한 반면, 서울과 경기, 강원 등 교육청 수준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정책이 시행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 앉았다 일어서기 등 교사에 의한 기합성 체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는 경북과 울산이 공동1위를 차지했고, 강원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자주 또는 가끔 기합성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체와 도구를 활용한 체벌에 비해 기합성 체벌은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 신체와 도구를 활용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1~3순위를 기록한 대전, 경북, 울산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기합성 체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1~3순위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다. 신체와 도구를 활용해 학생을 함부로 때리는 체벌이 빈발하는 지역(이른바 '직접체벌')은 기합성 체벌(이른바 '간접체벌')도 남용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도 대전→경북→부산→울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체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언어폭력도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광주, 전북, 서울, 경기의 경우에도 손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경험율이 각각 47.0%, 42.1%, 29.1%, 25.7%에 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체벌 금지 조항의 준수가 강력히 요청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일찌감치 제정된 경기와 서울의 경우에도 언어폭력 경험률이 각각 42.3%와 38.2%에 이르러 학생에 대한 모욕, 비난, 협박 등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의 체벌 및 언어폭력 빈도 (한달에 1~2번 이상 합산)			
순위	지역	빈도	백분율
1	대전	190	69.9%
2	울산	128	66.7%
3	경북	119	63.3%
4	전남	419	61.4%
5	부산	252	59.7%
6	충북	172	58.7%
7	인천	255	56.3%
8	충남	242	54.4%
9	경남	240	52.7%
10	광주	169	51.2%
11	전북	133	46.0%
12	대구	175	45.8%
13	경기	123	43.3%
14	서울	204	39.5%
15	강원	123	36.5%
16	제주	99	36.3%

- 학교에서 체벌이나 언어폭력을 한달에 1~2번 이상 자주 경험한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을 넘어서는 지역은 1순위 대전부터 10순위 광주까지 무려 10개 지역에 이른다. 상대적으로 체벌과 언어폭력 발생 빈도가 낮은 경기, 서울, 강원의 경우에도 학생 셋 중 하나 이상은 한달에 1~2번 이상 체벌과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매우 폭력적 환경의 학교에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두발.복장규제 '우수' 다발 지역

순위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	양말, 외투 등 복장 규제
1위	대전(89.0%)	대전(94.9%)	울산(82.8%)
2위	인천(79.9%)	부산(94.1%)	대전(80.1%)
3위	부산(77.7%)	울산(90.1%)	부산(80.1%)
4위	충북(69.5%)	인천(89.2%)	충북(78.6%)
5위	울산(65.1%)	경북(86.2%)	경북(74.5%)
6위	경남(64.0%)	경남(82.9%)	인천(74.2%)
7위	경북(53.2%)	충북(79.9%)	서울(71.9%)
8위	전남(48.7%)	강원(78.5%)	경기(68.7%)

9위	대구(46.4%)	대구(77.9%)	경남(67.0%)
10위	제주(42.8%)	서울(77.2%)	대구(66.5%)
11위	충남(41.0%)	충남(77.1%)	전북(65.5%)
12위	서울(37.8%)	경기(76.8%)	충남(64.4%)
13위	전북(31.1%)	제주(74.2%)	전남(62.6%)
14위	경기(20.4%)	전북(72.0%)	광주(60.3%)
15위	광주(18.2%)	전남(68.8%)	강원(56.6%)
16위	강원(10.9%)	광주(48.8%)	제주(53.6%)

- 두발.복장규제가 심한 지역은 대개 체벌과 언어폭력도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역이다.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의 경우 지역별로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머리 모양이나 색깔 규제나 복장규제는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경험한다고 답해 지역별 격차가 대동소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금지가 명시된 경기도의 경우에도 여전히 길이 통제가 2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두발 전면 자유와 복장 자유가 명시된 서울의 경우,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도 40%에 육박하고 복장 통제는 70%를 넘어설 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3) 강제학습 '우수' 다발 지역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1위	경북 (90.4%)
2위	대전 (84.9%)
3위	울산 (80.7%)
4위	광주 (69.1%)
5위	부산 (66.1%)
6위	인천 (65.6%)
7위	경남 (64.0%)
8위	전남 (53.7%)
9위	충남 (53.4%)
10위	전북 (46.7%)
11위	대구(46.1%)
12위	제주(45.6%)
13위	충북(45.2%)
14위	경기(39.8%)
15위	강원(24.2%)
16위	서울(23.3%)

- 체벌과 언어폭력, 두발.복장규제가 심각한 지역이 강제학습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부터 9위까지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강제학습을 자주 또는 가끔 경험했다. 광주의 경우, 체벌이나 두발.복장 규제에서는 후순위를 차지하였으나 강제학습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학습 강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4) 휴대전화 사용 규제 '우수' 다발 지역

쉬는시간, 점심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순위	지역
1	울산92.2%
2	대전88.2%
3	경북87.8%
4	인천86.3%
5	경남86.2%
6	충북85.3%
7	전남83.5%
8	광주80.9%
9	충남79.3%
10	제주76.6%
11	부산76.1%
12	경기72.2%
13	대구71.5%
14	전북71.0%
15	서울52.7%
16	강원51.6%

○ 휴대전화에 대한 규제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이 아닌 자유 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위반임에도 경기, 서울 지역의 경우에도 횡행하고 있다. 경쟁적, 억압적 학습 분위기가 강해지는 지역에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도 심했다.

5) 성적 공개 및 모욕 '우수' 다발 지역

성적(점수, 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것	
1위	부산(57.6%)
2위	경북(53.7%)
3위	울산(53.6%)
4위	대전(53.0%)
5위	광주(47.6%)
6위	경남(42.6%)
7위	인천(42.1%)
	전남(42.1%)
9위	경기(38.8%)
10위	전북(38.4%)

11위	충북(37.6%)
12위	대구(34.3%)
	서울(34.3%)
14위	충남(33.8%)
15위	강원(29.5%)
16위	제주(19.3%)

- 강제학습에서 1순위를 기록한 경북의 경우, 성적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에서도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적에 대한 압박과 경쟁교육이 강제학습과 성적공개와 공통된 원인인 것으로 추측된다.

6)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억압 '우수' 다발 지역

순위	교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매우 그렇다 + 조금 그렇다)
1위	대전 (84.2%)	대전 (89.0%)	울산 (74.0%)
2위	부산 (83.6%)	부산 (84.6%)	경북 (71.8%)
3위	경북 (83.5%)	울산 (83.9%)	대전 (68.4%)
4위	울산 (82.3%)	경북 (77.1%)	부산 (68.0%)
5위	인천 (71.7%)	대구 (75.1%)	인천 (62.3%)
6위	대구 (71.7%)	충남 (74.8%)	경기 (62.0%)
7위	서울 (71.1%)	경기 (73.9%)	광주 (61.5%)
8위	충남 (70.9%)	인천 (73.7%)	경남 (56.7%)
9위	경남 (69.7%)	충북 (72.4%)	대구 (55.8%)
10위	충북 (68.8%)	서울 (72.1%)	전북 (55.2%)
11위	경기 (68.0%)	전북 (72.0%)	전남 (55.0%)
12위	전남 (66.5%)	경남 (70.8%)	충북 (55.0%)
13위	광주 (65.8%)	전남 (69.6%)	충남 (54.9%)
14위	전북 (63.8%)	광주 (67.9%)	서울 (53.7%)
15위	강원 (56.7%)	제주 (59.4%)	강원 (43.6%)
16위	제주 (55.1%)	강원 (58.4%)	제주 (42.0%)

- 학교 교칙(학칙) 제.개정을 포함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학생이 의견을 표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등 학생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질문에 대해 지역별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은 대전, 부산, 경북, 울산으로, 앞치락뒤치락 서로 1순위를 다투고 있다. 다른 인권 침해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를 기록한 서울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셋 중 둘 정도는 학생의 의견이 학칙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답해 7순위를 기록했다. 체벌, 두발규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침해 사안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학생의 인격과 의견이 존중되는 데까지는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7) 상벌점제 폐해 '우수' 지역

순위	사소한 잘못/실수에도 벌점을 준다.		벌점 또는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벌점 또는 상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1위	충북	67.3%	울산	61.5%	대전	80.9%
2위	대전	65.1%	경북	59.0%	충북	79.8%
3위	울산	60.9%	인천	58.9%	인천	79.7%
4위	인천	58.5%	부산	58.3%	울산	79.7%
5위	부산	56.9%	충북	58.2%	경북	79.3%
6위	경북	55.9%	대전	57.4%	경기	77.8%
7위	대구	52.7%	경기	54.9%	전남	73.4%
8위	전남	50.7%	충남	49.9%	부산	72.7%
9위	전북	47.2%	전북	47.9%	서울	72.5%
10위	경남	45.9%	경남	47.7%	대구	72.3%
11위	경기	45.8%	대구	47.0%	전북	71.4%
12위	충남	45.6%	서울	45.4%	제주	71.3%
13위	제주	42.7%	전남	45.1%	충남	70.1%
14위	서울	42.2%	제주	41.8%	경남	69.5%
15위	광주	41.5%	광주	39.7%	강원	66.9%
16위	강원	36.3%	강원	38.4%	광주	58.2%

○ 벌점제의 남용, 비교육적 효과, 자의적 운용 등 벌점제의 남용과 관련하여서는 충북, 경기, 인천 등 다른 인권침해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던 지역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서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의 경우, 벌점제 폐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학생인권교육 미실시 또는 미흡 '우수' 지역

학생인권교육 미실시 또는 미흡('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이 적은 순서)	
1위	울산 (5.2%)
2위	대전 (6.3%)
3위	경북 (6.9%)
4위	대구 (7.5%)

5위	부산 (7.8%)
6위	전남 (8.5%)
7위	제주 (9.5%)
8위	경남 (9.9%)
9위	인천 (10.6%)
10위	강원 (12.6%)
11위	서울 (13.4%)
12위	충북 (14.0%)
13위	전북 (14.5%)
14위	충남 (15.2%)
15위	경기 (19.4%)
16위	광주 (23.6%)

-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빈발 지역이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거나 효과가 미흡하여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낮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경험률이 높은 경기나 광주 지역에서 다섯 명 중에 한 명 꼴에 불과해 학생인권교육 강화가 절실함을 알 수 있다.

9)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수' 지역

순위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1위	대전	52.2%	경북	72.3%	대전	80.9%
2위	경북	51.1%	부산	70.1%	부산	78.0%
3위	부산	49.1%	대전	68.8%	경북	76.6%
4위	울산	46.4%	울산	64.6%	울산	71.9%
5위	광주	44.8%	광주	63.0%	인천	67.1%
6위	경기	43.0%	경기	58.8%	충북	58.8%
7위	인천	38.9%	인천	56.7%	광주	57.3%
8위	충북	35.0%	서울	56.1%	전남	56.4%
9위	대구	33.9%	전남	53.7%	서울	55.6%
10위	전남	33.4%	경남	51.2%	경남	54.5%
11위	전북	33.2%	전북	50.3%	경기	53.9%
12위	경남	32.1%	충남	50.0%	대구	52.2%
13위	서울	30.0%	대구	48.2%	전북	51.6%
14위	충남	27.9%	충북	47.1%	충남	50.9%
15위	강원	21.8%	강원	41.6%	강원	39.5%
16위	제주	17.8%	제주	36.6%	제주	31.0%

- 체벌이나 두발.복장규제, 강제학습 등이 빈발했던 지역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학교가 숨막힌다는 응답이 43%에 달했고, 서울 지역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학교가 학생을 차별하거나 학교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 경기, 서울,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에서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기대에 비해 학교현장이 더디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쪽(학생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별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1위	경북 (68.7%)
2위	대전 (66.2%)
3위	울산 (65.6%)
4위	부산 (65.4%)
5위	대구 (63.4%)
6위	전남 (62.6%)
7위	인천 (61.2%)
8위	충북 (60.5%)
9위	경남 (60.0%)
10위	전북 (58.1%)
11위	충남 (57.2%)
12위	서울 (56.2%)
13위	제주 (50.3%)
14위	경기 (49.6%)
15위	광주 (46.6%)
16위	강원 (45.4%)

-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또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순서를 보면 경북→대전→울산→부산→대구 등의 순으로 대동소이하다.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교의 변화를 느끼지도 기대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정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 최다 상위권 지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오른 지역들이 존재한다. 항목별로 1순위에 5점, 2순위에 4점, 3순위에 3점, 4순위에 2점, 5순위에 1점을 부여하여, 5순위까지 오른 지역들 가운데 총점이 가장 높은 지역을 골라 인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선별했다.

지역	인권침해 항목									합계
	1	2	3	4	5	6	7	8	9	
대전	13	14	4	4	2	13	10	4	16	80
울산	8.5	9	3	5	3	10	10	5	9	62.5
경북	11.5	2	5	3	4	9	1	3	17	55.5
부산	4	10	1	0	5	10	3	1	13	47
인천	0	6	0	2	0	2	8	0	1	19
충북	2	4	0	0	0	0	10	0	0	16
광주	0	0	2	0	1	0	0	0	2	5
대구	0	0	0	0	0	1	0	2	1	4
전남	2	0	0	0	0	0	0	0	0	2
경남	1	0	0	1	0	0	0	0	0	2

○ 그 결과 대전, 울산, 경북, 부산, 인천이 학생인권침해 총점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으로 선별되었다. 이들 지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이나 지역 시민사회의 독자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곳이다.

1) 체벌 언어폭력 우수 다발지역 (3개 항목)

대전	경북	울산	부산	충북	전남	경남
13점	11.5점	8.5점	4점	2점	2점	1점

2) 두발 복장규제 우수 다발지역 (3개 항목)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충북	경북
14	10	9	6	4	2

3) 강제학습 우수 다발지역 (1개 항목)

경북	대전	울산	광주	부산
5	4	3	2	1

4) 휴대전화 사용 규제 우수 다발지역 (1개 항목)

울산	대전	경북	인천	경남
5	4	3	2	1

5) 성적공개로 인한 모욕 우수 다발지역 (1개 항목)

부산	경북	울산	대전	광주
5	4	3	2	1

6) 학생 참여와 의사표현 억압 우수 다발지역 (3개 항목)

대전	부산	울산	경북	인천	대구
13	10	10	9	2	1

7) 상벌점제 폐해 우수 지역 (3개 항목)

충북	울산	대전	인천	부산	경북
10	10	9	8	3	1

8) 학생인권교육 미실시 또는 미흡 우수 지역 (1개 항목)

울산5	대전	경북	대구	부산
5	4	3	2	1

9)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수 지역 (4개 항목)

경북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인천	대구
17	16	13	9	2	1	1

3. 문항별 상관관계로 본 학생인권 실태 심층 분석

다음은 학생인권침해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응답 중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문항과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률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1) 체벌 및 언어폭력과 학칙에 의한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

: 폭력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개수	589	214	118	35	956
		%	61.6%	22.4%	12.3%	3.7%	100.0%
	가끔 있다	개수	567	579	413	155	1714
		%	33.1%	33.8%	24.1%	9.0%	100.0%
	별로 없다	개수	275	465	483	243	1466
		%	18.8%	31.7%	32.9%	16.6%	100.0%
	전혀 없다	개수	251	428	478	535	1692
		%	14.8%	25.3%	28.3%	31.6%	100.0%
총계		개수	1682	1686	1492	968	5828
		%	28.9%	28.9%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기합	자주 있다	개수	852	393	187	90	1522
		%	56.0%	25.8%	12.3%	5.9%	100.0%
	가끔 있다	개수	511	696	542	225	1974
		%	25.9%	35.3%	27.5%	11.4%	100.0%
	별로 없다	개수	177	339	450	234	1200
		%	14.8%	28.2%	37.5%	19.5%	100.0%
	전혀 없다	개수	142	258	311	418	1129
		%	12.6%	22.9%	27.5%	37.0%	100.0%
총계		개수	1682	1686	1490	967	5825
		%	28.9%	28.9%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	자주 있다	개수	608	175	83	30	896
		%	67.9%	19.5%	9.3%	3.3%	100.0%
	가끔 있다	개수	561	584	334	104	1583
		%	35.4%	36.9%	21.1%	6.6%	100.0%

	별로 없다	개수	337	580	642	236	1795
		%	18.8%	32.3%	35.8%	13.1%	100.0%
	전혀 없다	개수	174	343	429	598	1544
		%	11.3%	22.2%	27.8%	38.7%	100.0%
총계		개수	1680	1682	1488	968	5818
		%	28.9%	28.9%	25.6%	16.6%	100.0%

○ 교사에 의한 체벌과 기합 등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은 학교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훈육이란 이름으로 폭력이 허용되는 학교의 억압적인 분위기, 권위적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체벌 및 기합 그리고 언어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 중 많은 수가 학교의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자주 겪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거의 60% 이상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30%포인트 안팎 높았다.

2) 두발·복장규제와 학칙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
: 규제 심할수록 더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길이 규제	자주 있다	개수	1024	616	294	124	2058
		%	49.8%	29.9%	14.3%	6.0%	100.0%
	가끔 있다	개수	170	269	264	140	843
		%	20.2%	31.9%	31.3%	16.6%	100.0%
	별로 없다	개수	194	286	344	155	979
		%	19.8%	29.2%	35.1%	15.8%	100.0%
전혀 없다	개수	295	513	585	547	1940	
	%	15.2%	26.4%	30.2%	28.2%	100.0%	
총계		개수	1683	1684	1487	966	5820
		%	28.9%	28.9%	25.5%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머리 색깔/모양 규제	자주 있다	개수	1370	1042	633	333	3378
		%	40.6%	30.8%	18.7%	9.9%	100.0%
	가끔 있다	개수	172	363	429	231	1195
		%	14.4%	30.4%	35.9%	19.3%	100.0%
	별로 없다	개수	90	181	242	168	681
		%	13.2%	26.6%	35.5%	24.7%	100.0%
전혀 없다	개수	50	99	185	232	566	
	%	8.8%	17.5%	32.7%	41.0%	100.0%	
총계		개수	1682	1685	1489	964	5820
		%	28.9%	29.0%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조금	별로 그렇지	전혀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않다	않다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개수	1189	785	412	184	2570
		%	46.3%	30.5%	16.0%	7.2%	100.0%
	가끔 있다	개수	277	450	473	222	1422
		%	19.5%	31.6%	33.3%	15.6%	100.0%
	별로 없다	개수	133	268	338	203	942
		%	14.1%	28.5%	35.9%	21.5%	100.0%
전혀 없다	개수	84	182	265	358	889	
	%	9.4%	20.5%	29.8%	40.3%	100.0%	
총계		개수	1683	1685	1488	967	5823
		%	28.9%	28.9%	25.6%	16.6%	100.0%

○ 두발·복장규제를 자주 겪는 학생일수록 학교 규칙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길이 규제와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한 규제가 '자주 있다'고 답한 학생이 학교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8%, 46.3%에 달했다. 머리 길이 규제의 경우는 자주 당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규칙에 의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나, 길이 규제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머리 길이 규제만 없다고 해도 여타 용의복장규제나 인권 침해가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3) 휴대전화 규제와 학칙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

: 휴대전화도 못 쓰게 할수록 스트레스 더 많이 받는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주 있다	개수	1411	1227	897	508	4043
		%	34.9%	30.3%	22.2%	12.6%	100.0%
	가끔 있다	개수	67	120	167	68	422
		%	15.9%	28.4%	39.6%	16.1%	100.0%
	별로 없다	개수	66	106	141	83	396
		%	16.7%	26.8%	35.6%	21.0%	100.0%
전혀 없다	개수	136	229	283	307	955	
	%	14.2%	24.0%	29.6%	32.1%	100.0%	
총계		개수	1680	1682	1488	966	5816
		%	28.9%	28.9%	25.6%	16.6%	100.0%

○ 응답자들은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 학교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적은 경향을 보였다.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하는 일이 자주 있는 학생들은 1/3 가량이 학교 규칙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반면, 전혀 규제가 없는 경우는 1/3 가량이 스트레스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 중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15.5%포인트 많았다.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고 쉬는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학생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4) 강제 학습과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응답 사이의 상관관계

: 강제학습 적을수록 덜 숨막혀 한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자주 있다	개수	451	741	688	324	2204
		%	20.5%	33.6%	31.2%	14.7%	100.0%
	가끔 있다	개수	88	244	380	225	937
		%	9.4%	26.0%	40.6%	24.0%	100.0%
	별로 없다	개수	65	198	441	287	991
		%	6.6%	20.0%	44.5%	29.0%	100.0%
	전혀 없다	개수	74	225	600	790	1689
		%	4.4%	13.3%	35.5%	46.8%	100.0%
총계		개수	678	1408	2109	1626	5821
		%	11.6%	24.2%	36.2%	27.9%	100.0%

○ 방과 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장시간 잡아두는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느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제학습을 자주 당한다고 답한 학생들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강제학습을 전혀 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 가량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정도 많은 수치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강제로 장시간 학습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잘못된 상벌점제 운영과 학칙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

: 상벌점제 폐해 심할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소한 잘못으로도 벌점을 준다	매우 그렇다	개수	783	334	119	36	1272	
		%	61.6%	26.3%	9.4%	2.8%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462	620	416	156	1654	
		%	27.9%	37.5%	25.2%	9.4%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301	519	668	299	1787	
		%	16.8%	29.0%	37.4%	16.7%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38	213	287	475	1113	
		%	12.4%	19.1%	25.8%	42.7%	100.0%	
	총계		개수	1684	1686	1490	966	5826
			%	28.9%	28.9%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매우 그렇다	개수	841	335	111	42	1329
		%	63.3%	25.2%	8.4%	3.2%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418	614	423	120	1575
		%	26.5%	39.0%	26.9%	7.6%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250	449	548	206	1453
		%	17.2%	30.9%	37.7%	14.2%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75	288	408	599	1470
		%	11.9%	19.6%	27.8%	40.7%	100.0%
총계		개수	1684	1686	1490	967	5827
		%	28.9%	28.9%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벌점 또는 상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매우 그렇다	개수	1097	664	329	150	2240
		%	49.0%	29.6%	14.7%	6.7%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384	695	648	280	2007
		%	19.1%	34.6%	32.3%	14.0%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113	193	340	197	843
		%	13.4%	22.9%	40.3%	23.4%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90	129	173	339	731
		%	12.3%	17.6%	23.7%	46.4%	100.0%
총계		개수	1684	1681	1490	966	5821
		%	28.9%	28.9%	25.6%	16.6%	100.0%

○ 상벌점제 역시 학생들이 학교 규칙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잘못으로도 벌점을 준다고 답한 집단, 상벌점제로 학생을 협박한다고 답한 집단, 상벌점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확실하다고 답한 집단 모두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평균보다 약 20~30% 포인트 높았다.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6) 체벌과 상벌점제 사이의 관계
: 체벌 심할수록 상벌점제 오용도 심하다

			사소한 잘못으로도 벌점을 준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손발,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개수	409	280	181	87	957
		%	42.7%	29.3%	18.9%	9.1%	100.0%
	가끔 있다	개수	414	591	501	207	1713
		%	24.2%	34.5%	29.2%	12.1%	100.0%
	별로 없다	개수	223	416	569	259	1467
		%	15.2%	28.4%	38.8%	17.7%	100.0%
	전혀 없다	개수	228	370	538	562	1698
		%	13.4%	21.8%	31.7%	33.1%	100.0%
총계		개수	1274	1657	1789	1115	5835
		%	21.8%	28.4%	30.7%	19.1%	100.0%

			사소한 잘못으로도 벌점을 준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기합	자주 있다	개수	620	447	316	142	1525
		%	40.7%	29.3%	20.7%	9.3%	100.0%
	가끔 있다	개수	377	660	652	286	1975
		%	19.1%	33.4%	33.0%	14.5%	100.0%
	별로 없다	개수	150	325	472	254	1201
		%	12.5%	27.1%	39.3%	21.1%	100.0%
	전혀 없다	개수	126	224	348	433	1131
		%	11.1%	19.8%	30.8%	38.3%	100.0%
총계		개수	1273	1656	1788	1115	5832
		%	21.8%	28.4%	30.7%	19.1%	100.0%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손발,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개수	443	246	162	106	957
		%	46.3%	25.7%	16.9%	11.1%	100.0%
	가끔 있다	개수	447	547	447	274	1715
		%	26.1%	31.9%	26.1%	16.0%	100.0%
	별로 없다	개수	228	427	447	365	1467
		%	15.5%	29.1%	30.5%	24.9%	100.0%
	전혀 없다	개수	212	359	398	728	1697
		%	12.5%	21.2%	23.5%	42.9%	100.0%
총계		개수	1330	1579	1454	1473	5836
		%	22.8%	27.1%	24.9%	25.2%	100.0%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에 의한 기합	자주 있다	개수	665	409	265	186	1525
		%	43.6%	26.8%	17.4%	12.2%	100.0%
	가끔 있다	개수	417	633	538	390	1978
		%	21.1%	32.0%	27.2%	19.7%	100.0%
	별로 없다	개수	144	313	388	355	1200
		%	12.0%	26.1%	32.3%	29.6%	100.0%
	전혀 없다	개수	104	223	262	541	1130
		%	9.2%	19.7%	23.2%	47.9%	100.0%
총계		개수	1330	1578	1453	1472	5833
		%	22.8%	27.1%	24.9%	25.2%	100.0%

○ 상벌점제는 체벌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지도 방법으로 학교에 전면 도입되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체벌을 많이 당한다는 학생일수록 상벌점제가 사소한 것까지 처벌하며 학생을 협박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반면 구타든 기합이든 체벌을 적게 겪는 학생은 상벌점제가 학생을 협박하는 데 쓰인다거나 사소한 것까지 규제한다는 인식도 낮았다. 이는 상벌점제가 체벌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으며, 인권을 존중하고 폭력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벌점제에 따른 규제도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7) 학교 민주주의와 학생들의 스트레스
: 의견 목살될수록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개수	58	70	94	178	400
		%	14.5%	17.5%	23.5%	44.5%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125	325	520	359	1329
		%	9.4%	24.5%	39.1%	27.0%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441	788	650	288	2167
		%	20.4%	36.4%	30.0%	13.3%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058	502	228	142	1930
		%	54.8%	26.0%	11.8%	7.4%	100.0%
총계		개수	1682	1685	1492	967	5826
		%	28.9%	28.9%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	--	--	-------------------------------	--	--	--	----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개수	47	50	70	166	333
		%	14.1%	15.0%	21.0%	49.8%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103	281	502	356	1242
		%	8.3%	22.6%	40.4%	28.7%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479	826	688	304	2297
		%	20.9%	36.0%	30.0%	13.2%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055	528	232	139	1954
		%	54.0%	27.0%	11.9%	7.1%	100.0%
총계		개수	1684	1685	1492	965	5826
		%	28.9%	28.9%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매우 그렇다	개수	885	348	126	68	1427
		%	62.0%	24.4%	8.8%	4.8%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470	745	522	208	1945
		%	24.2%	38.3%	26.8%	10.7%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170	435	626	288	1519
		%	11.2%	28.6%	41.2%	19.0%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59	158	218	403	938
		%	17.0%	16.8%	23.2%	43.0%	100.0%
총계		개수	1684	1686	1492	967	5829
		%	28.9%	28.9%	25.6%	16.6%	100.0%

○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 및 민주주의와 학교 규칙 사이의 상관관계는 뚜렷했다.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규칙 등에 반영되지 않을수록 학생들은 학교 규칙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는 비율이 교칙 제.개정에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답한 학생들 중에는 14.5%인 데 비해, 학생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 중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는 비율은 54.8%나 되어 무려 40.3% 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런 격차는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걱정하는지 여부에서도 매우 크게 드러난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고, 학교 규칙 제.개정 및 학교 운영에도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학생들이 규칙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8) 학교에 대한 생각들 사이의 상관관계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매우 그렇다	개수	462	433	225	75	1195
		%	38.7%	36.2%	18.8%	6.3%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157	638	853	358	2006
		%	7.8%	31.8%	42.5%	17.8%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51	290	877	386	1604
		%	3.2%	18.1%	54.7%	24.1%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8	50	153	813	1024
		%	0.8%	4.9%	14.9%	79.4%	100.0%
총계		개수	678	1411	2108	1632	5829
		%	11.6%	24.2%	36.2%	28.0%	100.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매우 그렇다	개수	462	433	225	75	1195
		%	38.7%	36.2%	18.8%	6.3%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157	638	853	358	2006
		%	7.8%	31.8%	42.5%	17.8%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51	290	877	386	1604
		%	3.2%	18.1%	54.7%	24.1%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8	50	153	813	1024
		%	0.8%	4.9%	14.9%	79.4%	100.0%
총계		개수	678	1411	2108	1632	5829
		%	11.6%	24.2%	36.2%	28.0%	100.0%

○ 학교의 차별 대우와 강압적 태도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교차 분석 결과 학생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받는다 고 느낄수록 학생들은 학교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대우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학교 규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도 적었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79.4%나 되어서 전체 평균과 50%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학생들이 차별 받는다고 느낀 경험과 학교 규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이는 차별적 문화와 각종 폭력, 강압적 학교 문화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학교가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답한 학생일수록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는 학생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가운데 전혀 숨막히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은 무려 79.4%에 이르러 학교의 차별 대우가 학칙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총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	개수	546	619	385	131	1681	
		%	32.5%	36.8%	22.9%	7.8%	100.0%	
	조금 그렇다	개수	81	515	768	322	1686	
		%	4.8%	30.5%	45.6%	19.1%	100.0%	
	별로 그렇지 않다	개수	39	231	796	427	1493	
		%	2.6%	15.5%	53.3%	28.6%	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개수	12	44	160	752	968	
		%	1.2%	4.5%	16.5%	77.7%	100.0%	
	총계		개수	678	1409	2109	1632	5828
			%	11.6%	24.2%	36.2%	28.0%	100.0%

○ 학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과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응답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집단은 숨이 막힌다는 응답률 역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규칙 때문에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집단 중에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답이 5.7%("매우 그렇다"+"조금 그렇다")인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큰 차이였다. 학교 규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 중에는 77%가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학교 규칙이 주요한 변수 중 하나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V.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별 3대 우선 과제

각 지역별로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고 있는 문제들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지역별 3대 우선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역명 가나다순). 다른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3대 과제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정책적 목표를 갖고 단시간 내에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할 '핵심업무'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 강원도 3대 과제

: 1. 학생의견 존중 2. 휴대전화 규제 금지 3. 두발복장규제 폐지

체벌 (평균: 35.3%)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27.3%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44.0%
	언어폭력이 있다.	34.7%
두발복장규제 (평균: 48.6%)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10.9%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8.5%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56.6%
강제학습 (평균: 24.2%)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24.2%
휴대전화규제 (평균: 51.6%)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51.6%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29.5%)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29.5%
학생의견무시 (평균: 52.9%)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56.7%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58.4%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43.6%
벌점제 (평균: 47.2%)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36.3%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38.4%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66.9%
학생차별 (평균: 41.6%)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41.6%

“학생인권침해 청정지역 강원도를 기대한다”

강원도는 2012년 '강원 학교인권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인권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인권침해 빈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강제학습문제로 인해 최우주씨의 헌법소원이 추진되기도 했던 강원지역이 이만큼의 변화를 이뤄낸 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학생의견 무시 및 휴대전화, 두발, 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침해가 있다는 응답들이 여전히 과반에 가깝게 나타나는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침해 없는 인권청정지역 강원도를 기대하며 강원도 교육청의 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 경기도 3대 과제

: 1. 휴대전화 규제 금지 2. 학생 의견 존중 3. 벌점제 폐해 시정

체벌 (평균: 36.8%)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25.7%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42.6%
	언어폭력이 있다.	42.3%
두발복장규제 (평균: 55.3%)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20.4%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6.8%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68.7%
강제학습 (평균: 39.8%)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39.8%
휴대전화규제 (평균: 72.2%)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72.2%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38.7%)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38.7%
학생의견무시 (평균: 67.9%)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68.0%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3.9%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62.0%
벌점제 (평균: 59.5%)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45.8%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54.9%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7.8%
학생차별 (평균: 58.8%)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58.8%

“학생인권조례 선두주자인 게 무색한 경기”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4년차를 맞이한 지역이지만 조사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한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고, 학생 참여와 민주주의의 문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바닥을 기고 있었다. 학생들의 생활 하나하나까지 규제하며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벌점제의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것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 상벌점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꿈수 규제와 폭력이 반복될 뿐이다. 비교적 줄어들었다지만, 체벌, 두발복장규제, 각종 강제학습 등도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확실하고 상세하게 주지시키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 경상남도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두발복장규제 폐지 3. 학생 의견 존중

체벌 (평균: 53.7%)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54.5%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63.3%
	언어폭력이 있다.	43.5%
두발복장규제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64.0%

(평균: 71.3%)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82.9%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67.0%
강제학습 (평균: 64.0%)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64.0%
휴대전화규제 (평균: 86.2%)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86.2%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42.6%)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42.6%
학생의견무시 (평균: 65.7%)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69.7%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0.8%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56.7%
벌점제 (평균: 54.3%)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45.9%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47.7%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69.5%
학생차별 (평균: 51.2%)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51.2%

“경남학생들의 인권도, 주민의 뜻도 외면당한 경남.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경남은 지난 2012년,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의 방해 속에서도 시민들의 힘으로 경남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에 성공하였지만 도의회에 의해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도의회 차원의 학생인권조례 발의를 약속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경남교육감이 주장한 ‘경남학교공동체 인권헌장’ 또한 주민발의를 흔들기 위한 꼼수에 그칠 뿐 발표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학생인권침해 문제들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보장을 약속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새롭게 취임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생인권변화의 바람은 느껴지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생인권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도 뜨는 공지, 교육자료 하나 없는 실태다. 더 이상 경남학생들의 인권이 내팽개쳐져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생인권 변화의 바람을 체감 할 수 있도록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문제들부터 해결해 나가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재추진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 경상북도 3대 과제

: 1. 강제학습 폐지 2. 휴대전화규제 금지 3. 학생의견 존중

체벌 (평균: 63.3%)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59.6%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77.1%
	언어폭력이 있다.	53.2%
두발복장규제 (평균: 71.3%)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53.2%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86.2%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74.5%
강제학습 (평균: 90.4%)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90.4%
휴대전화규제 (평균: 87.8%)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87.8%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53.7%)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53.7%
학생의견무시 (평균: 77.4%)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83.5%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7.1%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71.8%
벌점제 (평균: 64.7%)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55.9%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59.0%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9.3%
학생차별 (평균: 72.3%)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72.3%

“체벌, 강제학습, 두발용의복장 규제, 뭐하나 빠지지 않는 학생인권사각지대 경북.”

경상북도는 대전에 이어 학생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금지되어 있고, 교과부도 계속 행정지침을 통해 계도하고 있는 체벌은 물론, 90%의 학생이 방과후 강제학습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실질적으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파행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당연시 하는 교육풍토 속에서 억압된 욕구들이 다른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는 현실을 나 몰라라 하는 경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

■ 광주광역시 3대 과제

-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강제학습 폐지 3. 학생의견 존중**

체벌 (평균: 48.6%)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47.0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51.5
	언어폭력이 있다.	47.3
두발복장규제 (평균: 42.4%)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18.2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48.8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60.3
강제학습 (평균: 69.1%)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69.1
휴대전화규제 (평균: 80.9%)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80.9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47.6%)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47.6
학생의견무시 (평균: 65.0%)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65.8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67.9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61.5
벌점제 (평균: 46.4%)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41.5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39.7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58.2

학생차별 (평균: 63.0%)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63.0
---------------------	-----------------	------

“말로만 만들 수 없는, 인권도시 광주”

이미 제정되어 시행중인 광주학생인권조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 건무시 인권침해 문제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의 현실은, 학생들이 인권을 먼 옛날의 이야기, 형식적인 이야기로 느끼게 만들고 있다.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제와 강요에 막혀버린 학생들의 숨통이 트일 때 진짜 인권도시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부터 학교 현장에서 뿌리 뽑으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대구광역시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학생의견 존중 3. 두발복장규제 폐지

체벌 (평균: 46.1%)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44.4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61.8
	언어폭력이 있다.	32.3
두발복장규제 (평균: 63.6%)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46.4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7.9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66.5
강제학습 (평균: 46.1%)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46.1
휴대전화규제 (평균: 71.5%)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71.5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34.4%)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34.4
학생의견무시 (평균: 67.5%)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71.7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5.1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55.8
벌점제 (평균: 57.3%)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52.7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47.0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2.3
학생차별 (평균: 48.2%)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48.2

“머리 잡고 무시하면서 대구 ‘행복교육’?”

대구 교육감은 행복교육을 내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구 학생들은 두발복장규제와 휴대전화 규제, 학생 의견 무시, 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들을 무시하고 통제하면서 어떻게 행복교육을 이루겠다는 것일까? 행복은 말로만 교육하고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대구교육이 될수 있도록 휴대전화규제, 두발복장규제, 학생의견무시 문제 등 학생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대전광역시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두발복장규제 폐지 3. 학생의견 존중

체벌 (평균: 63.9%)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61.8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76.1
	언어폭력이 있다.	54.0
두발복장규제 (평균: 88%)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89.0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94.9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80.1
강제학습 (평균: 84.9%)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84.9
휴대전화규제 (평균: 88.2%)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88.2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52.9%)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52.9
학생의견무시 (평균: 80.5%)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84.2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89.0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68.4
벌점제 (평균: 67.8%)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65.1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57.4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80.9
학생차별 (평균: 68.8%)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68.8

“학생인권침해의 도시, 대전에 온 것을 환영하오?”

무슨 말이 더 필요 할까. 수치만 보더라도 압도적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후보시절부터 언론인터뷰 등에서 “당연히 학생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취임 이후에도 대전의 학생인권 현실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대전 학생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두발복장규제,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문제들부터라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 부산광역시 3대 과제

: 1. 두발복장규제 폐지 2. 학생의견 존중 3. 휴대전화규제 금지

체벌 (평균: 58.3%)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54.3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69.0
	언어폭력이 있다.	51.7
두발복장규제 (평균: 83.9%)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77.7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94.1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80.1
강제학습 (평균: 66.1%)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66.1

휴대전화규제 (평균: 76.1%)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76.1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57.6%)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57.6
학생의견무시 (평균: 78.7%)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83.6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84.6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68.0
벌점제 (평균: 62.6%)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56.9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58.3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2.7
학생차별 (평균: 70.1%)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70.1

“머리모양, 양말 색깔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로부터 시작하는 부산교육개혁”

부산이라는 국제적인 도시에서 아직도 머리 길이와 모양 양말이나 외투 색깔 같은 것으로 학생과 학교가 갈등을 겪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학생인권침해 종합순위 역시 전국 4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다. 성적을 공개 및 모욕은 전국 최고이며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생의 휴대폰을 교칙에 의해 6개월씩이나 압수한 이야기도 올라와 있다.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못지않게 어떤 교육을 만들지도 중요하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머리모양 양말 색깔조차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김석준부산교육감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에 만연한 학생인권침해 문제들부터 바로잡으며 부산교육개혁을 시작하길 촉구한다.

■ 서울특별시 3대 과제

: 1. 학생의견 존중 2. 두발복장규제 폐지 3. 학생 차별 금지

체벌 (평균: 35.6%)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29.1%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39.7%
	언어폭력이 있다.	38.2%
두발복장규제 (평균: 62.3%)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37.8%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7.2%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71.9%
강제학습 (평균: 23.2%)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23.2%
휴대전화규제 (평균: 52.7%)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52.7%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34.3%)	성적공개 및 성적으로 인한 모욕감을 준다.	34.3%
학생의견무시 (평균: 65.6%)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71.1%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2.1%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53.7%
벌점제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42.2%

(평균: 53.4%)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45.4%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2.5%
학생차별 (평균: 56.1%)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56.1%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 3년차, 학생인권옹호관조차 없이 뒷걸음질치는 서울

2012년 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된지 3년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발, 복장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적 논란은 이미 2013년에 대법원 판결로 종식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임명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는 학칙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되지 않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서울학생들의 현실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뒷걸음질 치는 서울학생인권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조례조차 무시한 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들을 관리감독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울산광역시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강제학습 폐지 3. 학생의견 존중

체벌 (평균: 62.1%)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58.3%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77.1%
	언어폭력이 있다.	51.0%
두발복장규제 (평균: 79.3%)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65.1%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90.1%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82.8%
강제학습 (평균: 80.7%)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80.7%
휴대전화규제 (평균: 92.2%)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92.2%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53.6%)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53.6%
학생의견무시 (평균: 80.0%)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82.3%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83.9%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74.0%
벌점제 (평균: 67.3%)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60.9%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61.5%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9.7%
학생차별 (평균: 64.6%)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64.6%

“학생인권이라는 말조차 낯선 도시 울산”

울산교육청은 학생인권침해 2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지 답하길 바란다. 휴대전화사용

규제는 전국에서 가장 심하고 특히 강제학습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을 강제할 뿐 아니라 성적공개와 모욕도 전국 3위이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표현하지도 존중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모욕감을 느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전국 1위이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이 울산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가 없는 교육에서 희망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울산시교육청은 기억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 인권침해 문제들을,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하길 촉구한다.

■ 인천광역시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두발복장규제 폐지 3. 학생의견 존중

체벌 (평균: 50.8%)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45.5%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64.9%
	언어폭력이 있다.	42.2%
두발복장규제 (평균: 81.1%)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79.9%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89.2%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74.2%
강제학습 (평균: 65.6%)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65.6%
휴대전화규제 (평균: 86.3%)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86.3%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42.0%)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42.0%
학생의견무시 (평균: 69.2%)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71.7%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3.7%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62.3%
벌점제 (평균: 65.7%)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58.5%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58.9%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9.7%
학생차별 (평균: 56.7%)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56.7%

“인천학생들의 열망, 더 이상 외면 말아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새롭게 취임할 즈음 교육청 사이트에 두발규제폐지를 요구하는 인천학생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올라오는 등 학생인권보장을 향한 인천학생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하지만 취임 4개월이 지나는 현재까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청차원의 조치나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침해를 견뎌온 학생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학생인권보장을 향한 학생들의 열망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휴대전화규제, 두발복장규제, 학생의견무시 문제부터 해결하며 인천에도 학생인권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더 이상 인천 학생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고 교육청이 학생인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길 촉구한다.

■ 전라남도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학생의견 존중 3. 두발복장규제 폐지

체벌 (평균: 56.5%)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56.5%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68.0%
	언어폭력이 있다.	45.2%
두발복장규제 (평균: 60.0%)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48.7%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68.8%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62.6%
강제학습 (평균: 53.7%)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53.7%
휴대전화규제 (평균: 83.5%)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83.5%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42.1%)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42.1%
학생의견무시 (평균: 63.7%)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66.5%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69.6%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55.0%
벌점제 (평균: 56.4%)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50.7%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45.1%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3.4%
학생차별 (평균: 53.7%)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53.7%

“사라져버린 전남의 학생인권정책을 찾아야 할 때!”

지난 2012년 학생인권보장 내용을 포함하여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했던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전남지역에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이 사라졌다. 그 이후 민주시민인권교육 정도의 정책이 추진될 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일상을 규제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을 가지길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가장 좋은 인권교육은 인권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학교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휴대전화규제, 학생의견무시, 두발복장규제 문제들부터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전라북도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학생의견 존중 3. 두발복장규제 폐지

체벌 (평균: 48.0%)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42.1%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58.6%
	언어폭력이 있다.	43.3%
두발복장규제 (평균: 56.2%)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31.1%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2.0%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65.5%
강제학습 (평균: 46.7%)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46.7%
휴대전화규제 (평균: 71.0%)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71.0%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38.4%)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38.4%
학생의견무시 (평균: 63.6%)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63.8%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2.0%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55.2%
벌점제 (평균: 55.5%)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47.2%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47.9%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1.4%
학생차별 (평균: 50.3%)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50.3%

“전국에서 4번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 아직은 더딘 발걸음”

전북은 2013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로 본격적인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포 6개월이 지난 지금, 휴식시간 조차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학생들이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은 전북 학생인권조례의 안착화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제주특별자치도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두발복장규제 폐지 3. 학생의견 존중

체벌 (평균: 34.8%)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44.0%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36.2%
	언어폭력이 있다.	24.4%
두발복장규제 (평균: 56.8%)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42.8%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4.2%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53.6%
강제학습 (평균: 45.6%)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45.6%
휴대전화규제 (평균: 76.6%)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76.6%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19.3%)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19.3%
학생의견무시 (평균: 52.1%)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55.1%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59.4%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42.0%
벌점제 (평균: 51.9%)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42.7%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41.8%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1.3%
학생차별 (평균: 36.6%)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36.6%

“제주특별자치도를 학생인권특별자치도로!”

학생인권실태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제주지역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지만, 휴대전화규제와 학생의견 무시 등 타 지역만큼 심각하며, 체벌·차별·벌점제폐해 등의 문제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뿐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3대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생인권특별자치도'라 불릴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되길 개선되길 기대한다.

■ 충청남도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학생의견 존중 3. 두발복장규제 폐지

체벌 (평균: 48.5%)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38.6%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68.3%
	언어폭력이 있다.	38.7%
두발복장규제 (평균: 60.8%)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41.0%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7.1%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64.4%
강제학습 (평균: 53.4%)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53.4%
휴대전화규제 (평균: 79.3%)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79.3%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33.7%)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33.7%
학생의견무시 (평균: 66.9%)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70.9%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4.8%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55.0%
벌점제 (평균: 55.2%)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45.6%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49.9%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0.1%
학생차별 (평균: 50.0%)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50.0%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학생인권침해 문제 해결에서부터!

충남 교육청은 지난 9월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학교'를 5대 정책방향의 하나로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휴대전화 규제, 두발복장규제, 학생의견 무시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나타났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런 학생인권침해 상황을 직시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만들기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현장에서부터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침해 문제들부터 뿌리뽑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마련

및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충청북도 3대 과제

: 1. 휴대전화규제 금지 2. 두발복장규제 폐지 3. 벌점제 폐해 시정

체벌 (평균: 55.4%)	손발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이 있다	50.3%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기합)이 있다.	68.4%
	언어폭력이 있다.	47.6%
두발복장규제 (평균: 76%)	두발의 길이를 규제한다.	69.5%
	두발의 염색/형태를 규제한다.	79.9%
	양말, 외투 등 복장을 규제한다.	78.6%
강제학습 (평균: 45.2%)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로 시킨다.	45.2%
휴대전화규제 (평균: 85.3%)	쉬는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	85.3%
성적 공개, 모욕감 (평균: 37.5%)	성적공개 및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준다.	37.5%
학생의견무시 (평균: 65.3%)	교칙을 만들 때 학생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68.8%
	학생들이 의견을 말해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	72.4%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54.9%
벌점제 (평균: 68.4%)	사소한 실수, 잘못에도 벌점을 준다	67.3%
	상벌점제를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58.2%
	상벌점제의 기준이 그때그때 다르다.	79.8%
학생차별 (평균: 47.1%)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47.1%

학생도 행복한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학생인권보장.

2012년 16,808명의 주민발의로 충북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으나, 도교육청의 각하로 인해 학생인권도, 도민의 뜻도 꺾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취임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조차 주민들의 뜻과, 학생들의 인권을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 재추진 계획은 없다. 교육주체권리헌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 스스로 정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겠는가? 충북지역의 빈번한 학생인권침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꺾인 충북 학생인권조례를 재추진을 통해 학생들도 즐거운 학교, 학생들도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길 촉구한다.

VI. 조사 결과의 시사점

학생 위에 군림하는 학교,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학생을 찍어누르고 내모는 학교, 온갖 규제로 학생을 숨막히게 만드는 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게 만드는 학교.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는 학교의 음울한 자화상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하여 지역 차원의 학생인권 정책이 조금이라도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권침해 빈도가 낮다는 것은 희망적이나, 동시에 이들 지역의 변화마저도 미비하다는 사실은 커다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014년 우리는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만났다. 그러나 '진보교육감'의 등장은 위와 같은 음울한 학교의 자화상을 출발선으로 삼은 채로 이루어졌다.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의 경우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 차원의 인권 보장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변화는 '진보교육감' 미당선 지역의 변화를 독려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생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인권을 누리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을 구체화하고 보장 시스템을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또는 학생인권법의 독자적 제정이 시급하다.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학생들의 고통과 절망, 학교에 대한 불신을 외면하지 말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인권·교육·청소년단체들이 내놓은 인권정책들을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지역별 인권침해 항목별 분포도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21	73	116	134	344
	지역내%	6.1%	21.2%	33.7%	39.0%	100.0%
경기	개수	30	43	68	143	284
	지역내%	10.6%	15.1%	23.9%	50.4%	100.0%
경남	개수	97	151	110	97	455
	지역내%	21.3%	33.2%	24.2%	21.3%	100.0%
경북	개수	52	60	41	35	188
	지역내%	27.7%	31.9%	21.8%	18.6%	100.0%
광주	개수	69	86	72	103	330
	지역내%	20.9%	26.1%	21.8%	31.2%	100.0%
대구	개수	72	99	81	133	385
	지역내%	18.7%	25.7%	21.0%	34.5%	100.0%
대전	개수	79	89	52	52	272
	지역내%	29.0%	32.7%	19.1%	19.1%	100.0%
부산	개수	86	143	92	101	422
	지역내%	20.4%	33.9%	21.8%	23.9%	100.0%
서울	개수	49	101	111	255	516
	지역내%	9.5%	19.6%	21.5%	49.4%	100.0%
울산	개수	55	57	43	37	192
	지역내%	28.6%	29.7%	22.4%	19.3%	100.0%
인천	개수	75	131	114	133	453
	지역내%	16.6%	28.9%	25.2%	29.4%	100.0%
전남	개수	127	263	182	118	690
	지역내%	18.4%	38.1%	26.4%	17.1%	100.0%
전북	개수	38	84	79	89	290
	지역내%	13.1%	29.0%	27.2%	30.7%	100.0%
제주	개수	29	92	81	73	275
	지역내%	10.5%	33.5%	29.5%	26.5%	100.0%
충남	개수	43	131	134	143	451
	지역내%	9.5%	29.0%	29.7%	31.7%	100.0%
충북	개수	35	113	94	52	294
	지역내%	11.9%	38.4%	32.0%	17.7%	100.0%
총계	개수	957	1716	1470	1698	5841
	지역내%	16.4%	29.4%	25.2%	29.1%	100.0%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엎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44	107	114	78	343
	지역내%	12.8%	31.2%	33.2%	22.7%	100.0%
경기	개수	46	75	58	105	284
	지역내%	16.2%	26.4%	20.4%	37.0%	100.0%
경남	개수	117	171	96	71	455
	지역내%	25.7%	37.6%	21.1%	15.6%	100.0%
경북	개수	80	65	27	16	188
	지역내%	42.6%	34.6%	14.4%	8.5%	100.0%
광주	개수	80	90	71	89	330
	지역내%	24.2%	27.3%	21.5%	27.0%	100.0%
대구	개수	109	127	79	67	382
	지역내%	28.5%	33.2%	20.7%	17.5%	100.0%
대전	개수	115	92	32	33	272
	지역내%	42.3%	33.8%	11.8%	12.1%	100.0%
부산	개수	146	145	75	56	422
	지역내%	34.6%	34.4%	17.8%	13.3%	100.0%
서울	개수	78	127	102	209	516
	지역내%	15.1%	24.6%	19.8%	40.5%	100.0%
울산	개수	79	69	24	20	192
	지역내%	41.1%	35.9%	12.5%	10.4%	100.0%
인천	개수	142	152	77	82	453
	지역내%	31.3%	33.6%	17.0%	18.1%	100.0%
전남	개수	185	284	146	75	690
	지역내%	26.8%	41.2%	21.2%	10.9%	100.0%
전북	개수	69	101	62	58	290
	지역내%	23.8%	34.8%	21.4%	20.0%	100.0%
제주	개수	19	81	95	81	276
	지역내%	6.9%	29.3%	34.4%	29.3%	100.0%
충남	개수	119	189	88	55	451
	지역내%	26.4%	41.9%	19.5%	12.2%	100.0%
충북	개수	97	104	56	37	294
	지역내%	33.0%	35.4%	19.0%	12.6%	100.0%
총계	개수	1525	1979	1202	1132	5838
	지역내%	26.1%	33.9%	20.6%	19.4%	100.0%

교사의 언어폭력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29	90	116	108	343
	지역내%	8.5%	26.2%	33.8%	31.5%	100.0%
경기	개수	48	72	71	93	284
	지역내%	16.9%	25.4%	25.0%	32.7%	100.0%
경남	개수	54	144	143	114	455
	지역내%	11.9%	31.6%	31.4%	25.1%	100.0%

경북	개수	52	48	56	32	188
	지역내%	27.7%	25.5%	29.8%	17.0%	100.0%
광주	개수	57	99	102	72	330
	지역내%	17.3%	30.0%	30.9%	21.8%	100.0%
대구	개수	50	74	140	120	384
	지역내%	13.0%	19.3%	36.5%	31.3%	100.0%
대전	개수	58	89	70	55	272
	지역내%	21.3%	32.7%	25.7%	20.2%	100.0%
부산	개수	84	134	109	95	422
	지역내%	19.9%	31.8%	25.8%	22.5%	100.0%
서울	개수	67	130	130	189	516
	지역내%	13.0%	25.2%	25.2%	36.6%	100.0%
울산	개수	41	57	54	40	192
	지역내%	21.4%	29.7%	28.1%	20.8%	100.0%
인천	개수	79	112	147	115	453
	지역내%	17.4%	24.7%	32.5%	25.4%	100.0%
전남	개수	113	197	220	156	686
	지역내%	16.5%	28.7%	32.1%	22.7%	100.0%
전북	개수	47	78	90	74	289
	지역내%	16.3%	27.0%	31.1%	25.6%	100.0%
제주	개수	14	53	96	112	275
	지역내%	5.1%	19.3%	34.9%	40.7%	100.0%
충남	개수	58	116	156	120	450
	지역내%	12.9%	25.8%	34.7%	26.7%	100.0%
충북	개수	47	92	98	55	292
	지역내%	16.1%	31.5%	33.6%	18.8%	100.0%
총계	개수	898	1585	1798	1550	5831
	지역내%	15.4%	27.2%	30.8%	26.6%	100.0%

학교에서의 체벌-언어폭력 빈도								
		거의매일	일주일 3번이상	일주일 1~2번	한달에1~ 2번	아주가끔	전혀없다	총계
강원	개수	9	32	49	33	117	97	337
	지역내%	2.7%	9.5%	14.5%	9.8%	34.7%	28.8%	100.0%
경기	개수	17	27	38	41	70	91	284
	지역내%	6.0%	9.5%	13.4%	14.4%	24.6%	32.0%	100.0%
경남	개수	47	53	81	59	113	102	455
	지역내%	10.3%	11.6%	17.8%	13.0%	24.8%	22.4%	100.0%
경북	개수	36	25	36	22	35	34	188
	지역내%	19.1%	13.3%	19.1%	11.7%	18.6%	18.1%	100.0%
광주	개수	37	46	51	35	76	85	330
	지역내%	11.2%	13.9%	15.5%	10.6%	23.0%	25.8%	100.0%
대구	개수	49	32	54	40	81	126	382
	지역내%	12.8%	8.4%	14.1%	10.5%	21.2%	33.0%	100.0%

대전	개수	56	40	64	30	44	38	272
	지역내%	20.6%	14.7%	23.5%	11.0%	16.2%	14.0%	100.0%
부산	개수	71	39	82	60	89	81	422
	지역내%	16.8%	9.2%	19.4%	14.2%	21.1%	19.2%	100.0%
서울	개수	34	45	67	58	147	165	516
	지역내%	6.6%	8.7%	13.0%	11.2%	28.5%	32.0%	100.0%
울산	개수	33	22	40	33	29	35	192
	지역내%	17.2%	11.5%	20.8%	17.2%	15.1%	18.2%	100.0%
인천	개수	58	57	84	56	92	106	453
	지역내%	12.8%	12.6%	18.5%	12.4%	20.3%	23.4%	100.0%
전남	개수	73	127	148	71	160	103	682
	지역내%	10.7%	18.6%	21.7%	10.4%	23.5%	15.1%	100.0%
전북	개수	26	40	46	21	87	69	289
	지역내%	9.0%	13.8%	15.9%	7.3%	30.1%	23.9%	100.0%
제주	개수	15	16	47	21	77	97	273
	지역내%	5.5%	5.9%	17.2%	7.7%	28.2%	35.5%	100.0%
충남	개수	29	44	100	69	107	96	445
	지역내%	6.5%	9.9%	22.5%	15.5%	24.0%	21.6%	100.0%
충북	개수	20	42	65	45	79	42	293
	지역내%	6.8%	14.3%	22.2%	15.4%	27.0%	14.3%	100.0%
총계	개수	610	687	1052	694	1403	1367	5813
	지역내%	10.5%	11.8%	18.1%	11.9%	24.1%	23.5%	100.0%

학원에서의 체벌-언어폭력 빈도								
		거의매일	일주일 에 3번이상	일주일 에 1~2번	한달에1~ 2번	아주가끔	전혀없다	총계
강원	개수	7	12	25	22	65	202	333
	지역내%	2.1%	3.6%	7.5%	6.6%	19.5%	60.7%	100.0%
경기	개수	9	13	27	51	40	144	284
	지역내%	3.2%	4.6%	9.5%	18.0%	14.1%	50.7%	100.0%
경남	개수	19	23	41	41	100	231	455
	지역내%	4.2%	5.1%	9.0%	9.0%	22.0%	50.8%	100.0%
경북	개수	14	8	16	23	28	99	188
	지역내%	7.4%	4.3%	8.5%	12.2%	14.9%	52.7%	100.0%
광주	개수	8	14	22	30	72	184	330
	지역내%	2.4%	4.2%	6.7%	9.1%	21.8%	55.8%	100.0%
대구	개수	20	10	20	26	73	230	379
	지역내%	5.3%	2.6%	5.3%	6.9%	19.3%	60.7%	100.0%
대전	개수	24	20	30	41	37	120	272
	지역내%	8.8%	7.4%	11.0%	15.1%	13.6%	44.1%	100.0%
부산	개수	21	21	34	52	90	204	422
	지역내%	5.0%	5.0%	8.1%	12.3%	21.3%	48.3%	100.0%
서울	개수	12	17	39	43	105	298	514

	지역내%	2.3%	3.3%	7.6%	8.4%	20.4%	58.0%	100.0%
울산	개수	11	12	12	16	39	102	192
	지역내%	5.7%	6.3%	6.3%	8.3%	20.3%	53.1%	100.0%
인천	개수	22	16	40	25	88	261	452
	지역내%	4.9%	3.5%	8.8%	5.5%	19.5%	57.7%	100.0%
전남	개수	25	35	47	27	146	402	682
	지역내%	3.7%	5.1%	6.9%	4.0%	21.4%	58.9%	100.0%
전북	개수	15	16	19	17	58	163	288
	지역내%	5.2%	5.6%	6.6%	5.9%	20.1%	56.6%	100.0%
제주	개수	3	6	12	21	58	172	272
	지역내%	1.1%	2.2%	4.4%	7.7%	21.3%	63.2%	100.0%
충남	개수	10	25	31	41	80	261	448
	지역내%	2.2%	5.6%	6.9%	9.2%	17.9%	58.3%	100.0%
충북	개수	6	14	34	18	62	160	294
	지역내%	2.0%	4.8%	11.6%	6.1%	21.1%	54.4%	100.0%
총계	개수	226	262	449	494	1141	3233	5805
	지역내%	3.9%	4.5%	7.7%	8.5%	19.7%	55.7%	100.0%

가정에서의 체벌-언어폭력 빈도								
		거의매일	일주일 3번이상	일주일 1~2번	한달에 1~2번	아주가끔	전혀없다	총계
강원	개수	6	9	21	24	96	173	329
	지역내%	1.8%	2.7%	6.4%	7.3%	29.2%	52.6%	100.0%
경기	개수	14	7	18	53	59	133	284
	지역내%	4.9%	2.5%	6.3%	18.7%	20.8%	46.8%	100.0%
경남	개수	5	18	36	44	111	241	455
	지역내%	1.1%	4.0%	7.9%	9.7%	24.4%	53.0%	100.0%
경북	개수	7	1	19	23	43	95	188
	지역내%	3.7%	0.5%	10.1%	12.2%	22.9%	50.5%	100.0%
광주	개수	5	10	15	36	87	177	330
	지역내%	1.5%	3.0%	4.5%	10.9%	26.4%	53.6%	100.0%
대구	개수	9	14	19	19	85	235	381
	지역내%	2.4%	3.7%	5.0%	5.0%	22.3%	61.7%	100.0%
대전	개수	16	11	26	62	58	99	272
	지역내%	5.9%	4.0%	9.6%	22.8%	21.3%	36.4%	100.0%
부산	개수	13	10	27	60	102	210	422
	지역내%	3.1%	2.4%	6.4%	14.2%	24.2%	49.8%	100.0%
서울	개수	16	25	29	52	120	273	515
	지역내%	3.1%	4.9%	5.6%	10.1%	23.3%	53.0%	100.0%
울산	개수	12	7	14	17	45	97	192
	지역내%	6.3%	3.6%	7.3%	8.9%	23.4%	50.5%	100.0%
인천	개수	21	9	33	39	99	250	451
	지역내%	4.7%	2.0%	7.3%	8.6%	22.0%	55.4%	100.0%

전남	개수	19	21	24	28	166	425	683
	지역내%	2.8%	3.1%	3.5%	4.1%	24.3%	62.2%	100.0%
전북	개수	3	7	16	13	84	164	287
	지역내%	1.0%	2.4%	5.6%	4.5%	29.3%	57.1%	100.0%
제주	개수	2	6	11	16	60	177	272
	지역내%	0.7%	2.2%	4.0%	5.9%	22.1%	65.1%	100.0%
충남	개수	4	16	27	33	123	245	448
	지역내%	0.9%	3.6%	6.0%	7.4%	27.5%	54.7%	100.0%
충북	개수	8	9	19	12	85	159	292
	지역내%	2.7%	3.1%	6.5%	4.1%	29.1%	54.5%	100.0%
총계	개수	160	180	354	531	1423	3153	5801
	지역내%	2.8%	3.1%	6.1%	9.2%	24.5%	54.4%	100.0%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11	26	79	225	341
	지역내%	3.2%	7.6%	23.2%	66.0%	100.0%
경기	개수	34	24	40	186	284
	지역내%	12.0%	8.5%	14.1%	65.5%	100.0%
경남	개수	189	102	53	111	455
	지역내%	41.5%	22.4%	11.6%	24.4%	100.0%
경북	개수	77	23	32	56	188
	지역내%	41.0%	12.2%	17.0%	29.8%	100.0%
광주	개수	33	27	82	188	330
	지역내%	10.0%	8.2%	24.8%	57.0%	100.0%
대구	개수	100	78	84	122	384
	지역내%	26.0%	20.3%	21.9%	31.8%	100.0%
대전	개수	216	26	9	21	272
	지역내%	79.4%	9.6%	3.3%	7.7%	100.0%
부산	개수	279	49	30	64	422
	지역내%	66.1%	11.6%	7.1%	15.2%	100.0%
서울	개수	131	64	79	242	516
	지역내%	25.4%	12.4%	15.3%	46.9%	100.0%
울산	개수	100	25	31	36	192
	지역내%	52.1%	13.0%	16.1%	18.8%	100.0%
인천	개수	308	54	34	57	453
	지역내%	68.0%	11.9%	7.5%	12.6%	100.0%
전남	개수	228	107	135	218	688
	지역내%	33.1%	15.6%	19.6%	31.7%	100.0%
전북	개수	70	20	72	127	289
	지역내%	24.2%	6.9%	24.9%	43.9%	100.0%
제주	개수	46	72	74	84	276
	지역내%	16.7%	26.1%	26.8%	30.4%	100.0%
충남	개수	107	78	95	171	451

	지역내%	23.7%	17.3%	21.1%	37.9%	100.0%
충북	개수	133	70	54	35	292
	지역내%	45.5%	24.0%	18.5%	12.0%	100.0%
총계	개수	2062	845	983	1943	5833
	지역내%	35.4%	14.5%	16.9%	33.3%	100.0%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177	93	45	29	344
	지역내%	51.5%	27.0%	13.1%	8.4%	100.0%
경기	개수	166	52	23	43	284
	지역내%	58.5%	18.3%	8.1%	15.1%	100.0%
경남	개수	276	101	44	34	455
	지역내%	60.7%	22.2%	9.7%	7.5%	100.0%
경북	개수	147	15	17	9	188
	지역내%	78.2%	8.0%	9.0%	4.8%	100.0%
광주	개수	91	70	83	86	330
	지역내%	27.6%	21.2%	25.2%	26.1%	100.0%
대구	개수	184	115	50	35	384
	지역내%	47.9%	29.9%	13.0%	9.1%	100.0%
대전	개수	240	18	6	8	272
	지역내%	88.2%	6.6%	2.2%	2.9%	100.0%
부산	개수	364	33	12	13	422
	지역내%	86.3%	7.8%	2.8%	3.1%	100.0%
서울	개수	291	106	57	60	514
	지역내%	56.6%	20.6%	11.1%	11.7%	100.0%
울산	개수	149	24	9	10	192
	지역내%	77.6%	12.5%	4.7%	5.2%	100.0%
인천	개수	334	69	24	25	452
	지역내%	73.9%	15.3%	5.3%	5.5%	100.0%
전남	개수	322	152	120	95	689
	지역내%	46.7%	22.1%	17.4%	13.8%	100.0%
전북	개수	134	74	51	30	289
	지역내%	46.4%	25.6%	17.6%	10.4%	100.0%
제주	개수	112	92	44	27	275
	지역내%	40.7%	33.5%	16.0%	9.8%	100.0%
충남	개수	220	127	66	37	450
	지역내%	48.9%	28.2%	14.7%	8.2%	100.0%
충북	개수	177	57	34	25	293
	지역내%	60.4%	19.5%	11.6%	8.5%	100.0%
총계	개수	3384	1198	685	566	5833
	지역내%	58.0%	20.5%	11.7%	9.7%	100.0%

양말, 외투 등 복장 규제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90	104	71	78	343
	지역내%	26.2%	30.3%	20.7%	22.7%	100.0%
경기	개수	128	67	32	57	284
	지역내%	45.1%	23.6%	11.3%	20.1%	100.0%
경남	개수	180	125	94	56	455
	지역내%	39.6%	27.5%	20.7%	12.3%	100.0%
경북	개수	101	39	26	22	188
	지역내%	53.7%	20.7%	13.8%	11.7%	100.0%
광주	개수	123	76	57	74	330
	지역내%	37.3%	23.0%	17.3%	22.4%	100.0%
대구	개수	140	116	64	65	385
	지역내%	36.4%	30.1%	16.6%	16.9%	100.0%
대전	개수	156	62	35	19	272
	지역내%	57.4%	22.8%	12.9%	7.0%	100.0%
부산	개수	274	64	43	41	422
	지역내%	64.9%	15.2%	10.2%	9.7%	100.0%
서울	개수	268	103	69	76	516
	지역내%	51.9%	20.0%	13.4%	14.7%	100.0%
울산	개수	127	32	15	18	192
	지역내%	66.1%	16.7%	7.8%	9.4%	100.0%
인천	개수	240	96	66	51	453
	지역내%	53.0%	21.2%	14.6%	11.3%	100.0%
전남	개수	250	181	129	128	688
	지역내%	36.3%	26.3%	18.8%	18.6%	100.0%
전북	개수	117	73	54	46	290
	지역내%	40.3%	25.2%	18.6%	15.9%	100.0%
제주	개수	62	85	64	63	274
	지역내%	22.6%	31.0%	23.4%	23.0%	100.0%
충남	개수	173	117	82	78	450
	지역내%	38.4%	26.0%	18.2%	17.3%	100.0%
충북	개수	146	85	44	19	294
	지역내%	49.7%	28.9%	15.0%	6.5%	100.0%
총계	개수	2575	1425	945	891	5836
	지역내%	44.1%	24.4%	16.2%	15.3%	100.0%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29	54	109	151	343
	지역내%	8.5%	15.7%	31.8%	44.0%	100.0%
경기	개수	56	57	47	124	284
	지역내%	19.7%	20.1%	16.5%	43.7%	100.0%

경남	개수	206	85	67	97	455
	지역내%	45.3%	18.7%	14.7%	21.3%	100.0%
경북	개수	158	12	8	10	188
	지역내%	84.0%	6.4%	4.3%	5.3%	100.0%
광주	개수	169	59	42	60	330
	지역내%	51.2%	17.9%	12.7%	18.2%	100.0%
대구	개수	96	81	79	128	384
	지역내%	25.0%	21.1%	20.6%	33.3%	100.0%
대전	개수	197	34	20	21	272
	지역내%	72.4%	12.5%	7.4%	7.7%	100.0%
부산	개수	198	81	74	69	422
	지역내%	46.9%	19.2%	17.5%	16.4%	100.0%
서울	개수	62	58	104	292	516
	지역내%	12.0%	11.2%	20.2%	56.6%	100.0%
울산	개수	125	30	14	23	192
	지역내%	65.1%	15.6%	7.3%	12.0%	100.0%
인천	개수	207	90	69	87	453
	지역내%	45.7%	19.9%	15.2%	19.2%	100.0%
전남	개수	298	71	78	240	687
	지역내%	43.4%	10.3%	11.4%	34.9%	100.0%
전북	개수	90	45	54	100	289
	지역내%	31.1%	15.6%	18.7%	34.6%	100.0%
제주	개수	78	47	82	67	274
	지역내%	28.5%	17.2%	29.9%	24.5%	100.0%
충남	개수	166	75	82	128	451
	지역내%	36.8%	16.6%	18.2%	28.4%	100.0%
충북	개수	71	61	65	95	292
	지역내%	24.3%	20.9%	22.3%	32.5%	100.0%
총계	개수	2206	940	994	1692	5832
	지역내%	37.8%	16.1%	17.0%	29.0%	100.0%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강원	개수	154	23	30	136	343
	지역내%	44.9%	6.7%	8.7%	39.7%	100.0%
경기	개수	185	20	14	65	284
	지역내%	65.1%	7.0%	4.9%	22.9%	100.0%
경남	개수	360	32	21	42	455
	지역내%	79.1%	7.0%	4.6%	9.2%	100.0%
경북	개수	156	9	8	15	188
	지역내%	83.0%	4.8%	4.3%	8.0%	100.0%
광주	개수	232	35	28	35	330
	지역내%	70.3%	10.6%	8.5%	10.6%	100.0%
대구	개수	245	29	37	72	383

	지역내%	64.0%	7.6%	9.7%	18.8%	100.0%
대전	개수	231	9	9	23	272
	지역내%	84.9%	3.3%	3.3%	8.5%	100.0%
부산	개수	301	20	23	78	422
	지역내%	71.3%	4.7%	5.5%	18.5%	100.0%
서울	개수	241	31	47	197	516
	지역내%	46.7%	6.0%	9.1%	38.2%	100.0%
울산	개수	170	7	2	13	192
	지역내%	88.5%	3.6%	1.0%	6.8%	100.0%
인천	개수	364	26	20	42	452
	지역내%	80.5%	5.8%	4.4%	9.3%	100.0%
전남	개수	516	56	49	64	685
	지역내%	75.3%	8.2%	7.2%	9.3%	100.0%
전북	개수	182	24	25	59	290
	지역내%	62.8%	8.3%	8.6%	20.3%	100.0%
제주	개수	168	42	27	37	274
	지역내%	61.3%	15.3%	9.9%	13.5%	100.0%
충남	개수	319	38	37	56	450
	지역내%	70.9%	8.4%	8.2%	12.4%	100.0%
충북	개수	228	22	21	22	293
	지역내%	77.8%	7.5%	7.2%	7.5%	100.0%
총계	개수	4052	423	398	956	5829
	지역내%	69.5%	7.3%	6.8%	16.4%	100.0%

성적(점수, 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것						
		자주있다	가끔있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총계
강원	개수	24	77	111	130	342
	지역내%	7.0%	22.5%	32.5%	38.0%	100.0%
경기	개수	49	61	68	106	284
	지역내%	17.3%	21.5%	23.9%	37.3%	100.0%
경남	개수	81	113	134	127	455
	지역내%	17.8%	24.8%	29.5%	27.9%	100.0%
경북	개수	56	45	47	40	188
	지역내%	29.8%	23.9%	25.0%	21.3%	100.0%
광주	개수	61	96	84	89	330
	지역내%	18.5%	29.1%	25.5%	27.0%	100.0%
대구	개수	65	67	111	141	384
	지역내%	16.9%	17.4%	28.9%	36.7%	100.0%
대전	개수	81	63	64	64	272
	지역내%	29.8%	23.2%	23.5%	23.5%	100.0%
부산	개수	121	122	88	91	422
	지역내%	28.7%	28.9%	20.9%	21.6%	100.0%
서울	개수	65	112	132	207	516
	지역내%	12.6%	21.7%	25.6%	40.1%	100.0%

울산	개수	49	54	51	38	192
	지역내%	25.5%	28.1%	26.6%	19.8%	100.0%
인천	개수	98	92	128	134	452
	지역내%	21.7%	20.4%	28.3%	29.6%	100.0%
전남	개수	134	155	214	183	686
	지역내%	19.5%	22.6%	31.2%	26.7%	100.0%
전북	개수	42	69	82	96	289
	지역내%	14.5%	23.9%	28.4%	33.2%	100.0%
제주	개수	15	38	95	127	275
	지역내%	5.5%	13.8%	34.5%	46.2%	100.0%
충남	개수	53	99	142	157	451
	지역내%	11.8%	22.0%	31.5%	34.8%	100.0%
충북	개수	45	65	94	89	293
	지역내%	15.4%	22.2%	32.1%	30.4%	100.0%
총계	개수	1039	1328	1645	1819	5831
	지역내%	17.8%	22.8%	28.2%	31.2%	100.0%

교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43	106	134	61	344
	지역내%	12.5%	30.8%	39.0%	17.7%	100.0%
경기	개수	22	69	97	96	284
	지역내%	7.7%	24.3%	34.2%	33.8%	100.0%
경남	개수	25	113	186	131	455
	지역내%	5.5%	24.8%	40.9%	28.8%	100.0%
경북	개수	6	25	64	93	188
	지역내%	3.2%	13.3%	34.0%	49.5%	100.0%
광주	개수	21	92	119	98	330
	지역내%	6.4%	27.9%	36.1%	29.7%	100.0%
대구	개수	21	88	136	140	385
	지역내%	5.5%	22.9%	35.3%	36.4%	100.0%
대전	개수	9	34	81	148	272
	지역내%	3.3%	12.5%	29.8%	54.4%	100.0%
부산	개수	19	50	124	229	422
	지역내%	4.5%	11.8%	29.4%	54.3%	100.0%
서울	개수	31	118	191	176	516
	지역내%	6.0%	22.9%	37.0%	34.1%	100.0%
울산	개수	5	29	68	90	192
	지역내%	2.6%	15.1%	35.4%	46.9%	100.0%
인천	개수	44	84	172	153	453
	지역내%	9.7%	18.5%	38.0%	33.8%	100.0%
전남	개수	52	178	263	194	687
	지역내%	7.6%	25.9%	38.3%	28.2%	100.0%

전북	개수	25	80	108	77	290
	지역내%	8.6%	27.6%	37.2%	26.6%	100.0%
제주	개수	32	92	112	40	276
	지역내%	11.6%	33.3%	40.6%	14.5%	100.0%
충남	개수	24	108	202	119	453
	지역내%	5.3%	23.8%	44.6%	26.3%	100.0%
충북	개수	22	69	115	86	292
	지역내%	7.5%	23.6%	39.4%	29.5%	100.0%
총계	개수	401	1335	2172	1931	5839
	지역내%	6.9%	22.9%	37.2%	33.1%	100.0%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32	111	141	60	344
	지역내%	9.3%	32.3%	41.0%	17.4%	100.0%
경기	개수	16	58	111	99	284
	지역내%	5.6%	20.4%	39.1%	34.9%	100.0%
경남	개수	24	109	180	142	455
	지역내%	5.3%	24.0%	39.6%	31.2%	100.0%
경북	개수	8	35	54	91	188
	지역내%	4.3%	18.6%	28.7%	48.4%	100.0%
광주	개수	23	83	126	98	330
	지역내%	7.0%	25.2%	38.2%	29.7%	100.0%
대구	개수	14	82	140	149	385
	지역내%	3.6%	21.3%	36.4%	38.7%	100.0%
대전	개수	9	21	95	147	272
	지역내%	3.3%	7.7%	34.9%	54.0%	100.0%
부산	개수	11	54	150	207	422
	지역내%	2.6%	12.8%	35.5%	49.1%	100.0%
서울	개수	34	110	197	175	516
	지역내%	6.6%	21.3%	38.2%	33.9%	100.0%
울산	개수	1	30	79	82	192
	지역내%	0.5%	15.6%	41.1%	42.7%	100.0%
인천	개수	39	80	168	166	453
	지역내%	8.6%	17.7%	37.1%	36.6%	100.0%
전남	개수	50	159	281	198	688
	지역내%	7.3%	23.1%	40.8%	28.8%	100.0%
전북	개수	15	66	129	79	289
	지역내%	5.2%	22.8%	44.6%	27.3%	100.0%
제주	개수	22	90	114	50	276
	지역내%	8.0%	32.6%	41.3%	18.1%	100.0%
충남	개수	21	93	209	129	452
	지역내%	4.6%	20.6%	46.2%	28.5%	100.0%

충북	개수	15	66	128	84	293
	지역내%	5.1%	22.5%	43.7%	28.7%	100.0%
총계	개수	334	1247	2302	1956	5839
	지역내%	5.7%	21.4%	39.4%	33.5%	100.0%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28	122	129	65	344
	지역내%	8.1%	35.5%	37.5%	18.9%	100.0%
경기	개수	79	97	64	44	284
	지역내%	27.8%	34.2%	22.5%	15.5%	100.0%
경남	개수	99	159	122	75	455
	지역내%	21.8%	34.9%	26.8%	16.5%	100.0%
경북	개수	72	63	33	20	188
	지역내%	38.3%	33.5%	17.6%	10.6%	100.0%
광주	개수	83	120	77	50	330
	지역내%	25.2%	36.4%	23.3%	15.2%	100.0%
대구	개수	96	119	103	67	385
	지역내%	24.9%	30.9%	26.8%	17.4%	100.0%
대전	개수	92	94	45	41	272
	지역내%	33.8%	34.6%	16.5%	15.1%	100.0%
부산	개수	149	138	79	56	422
	지역내%	35.3%	32.7%	18.7%	13.3%	100.0%
서울	개수	128	149	135	104	516
	지역내%	24.8%	28.9%	26.2%	20.2%	100.0%
울산	개수	67	75	26	24	192
	지역내%	34.9%	39.1%	13.5%	12.5%	100.0%
인천	개수	134	148	110	61	453
	지역내%	29.6%	32.7%	24.3%	13.5%	100.0%
전남	개수	140	239	209	101	689
	지역내%	20.3%	34.7%	30.3%	14.7%	100.0%
전북	개수	69	91	81	49	290
	지역내%	23.8%	31.4%	27.9%	16.9%	100.0%
제주	개수	28	88	99	61	276
	지역내%	10.1%	31.9%	35.9%	22.1%	100.0%
충남	개수	102	147	123	81	453
	지역내%	22.5%	32.5%	27.2%	17.9%	100.0%
충북	개수	62	99	90	42	293
	지역내%	21.2%	33.8%	30.7%	14.3%	100.0%
총계	개수	1428	1948	1525	941	5842
	지역내%	24.4%	33.3%	26.1%	16.1%	100.0%

사소한 잘못/실수에도 벌점을 준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32	93	149	70	344
	지역내%	9.3%	27.0%	43.3%	20.3%	100.0%
경기	개수	54	76	82	72	284
	지역내%	19.0%	26.8%	28.9%	25.4%	100.0%
경남	개수	79	130	155	91	455
	지역내%	17.4%	28.6%	34.1%	20.0%	100.0%
경북	개수	47	58	56	27	188
	지역내%	25.0%	30.9%	29.8%	14.4%	100.0%
광주	개수	62	75	82	111	330
	지역내%	18.8%	22.7%	24.8%	33.6%	100.0%
대구	개수	86	117	123	59	385
	지역내%	22.3%	30.4%	31.9%	15.3%	100.0%
대전	개수	92	85	56	39	272
	지역내%	33.8%	31.3%	20.6%	14.3%	100.0%
부산	개수	136	104	105	77	422
	지역내%	32.2%	24.6%	24.9%	18.2%	100.0%
서울	개수	108	110	166	132	516
	지역내%	20.9%	21.3%	32.2%	25.6%	100.0%
울산	개수	57	60	50	25	192
	지역내%	29.7%	31.3%	26.0%	13.0%	100.0%
인천	개수	124	141	128	60	453
	지역내%	27.4%	31.1%	28.3%	13.2%	100.0%
전남	개수	132	217	224	115	688
	지역내%	19.2%	31.5%	32.6%	16.7%	100.0%
전북	개수	53	84	92	61	290
	지역내%	18.3%	29.0%	31.7%	21.0%	100.0%
제주	개수	44	73	94	63	274
	지역내%	16.1%	26.6%	34.3%	23.0%	100.0%
충남	개수	78	128	160	86	452
	지역내%	17.3%	28.3%	35.4%	19.0%	100.0%
충북	개수	91	107	69	27	294
	지역내%	31.0%	36.4%	23.5%	9.2%	100.0%
총계	개수	1275	1658	1791	1115	5839
	지역내%	21.8%	28.4%	30.7%	19.1%	100.0%

벌점 또는 상점을 무기로 학생을 협박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45	87	111	101	344
	지역내%	13.1%	25.3%	32.3%	29.4%	100.0%
경기	개수	75	81	52	76	284
	지역내%	26.4%	28.5%	18.3%	26.8%	100.0%

경남	개수	97	120	126	112	455
	지역내%	21.3%	26.4%	27.7%	24.6%	100.0%
경북	개수	58	53	37	40	188
	지역내%	30.9%	28.2%	19.7%	21.3%	100.0%
광주	개수	61	70	75	124	330
	지역내%	18.5%	21.2%	22.7%	37.6%	100.0%
대구	개수	87	94	115	89	385
	지역내%	22.6%	24.4%	29.9%	23.1%	100.0%
대전	개수	92	64	60	56	272
	지역내%	33.8%	23.5%	22.1%	20.6%	100.0%
부산	개수	137	109	70	106	422
	지역내%	32.5%	25.8%	16.6%	25.1%	100.0%
서울	개수	107	127	119	162	515
	지역내%	20.8%	24.7%	23.1%	31.5%	100.0%
울산	개수	69	49	38	36	192
	지역내%	35.9%	25.5%	19.8%	18.8%	100.0%
인천	개수	144	123	96	90	453
	지역내%	31.8%	27.2%	21.2%	19.9%	100.0%
전남	개수	117	193	211	167	688
	지역내%	17.0%	28.1%	30.7%	24.3%	100.0%
전북	개수	55	84	75	76	290
	지역내%	19.0%	29.0%	25.9%	26.2%	100.0%
제주	개수	33	82	77	83	275
	지역내%	12.0%	29.8%	28.0%	30.2%	100.0%
충남	개수	74	152	120	107	453
	지역내%	16.3%	33.6%	26.5%	23.6%	100.0%
충북	개수	79	92	74	49	294
	지역내%	26.9%	31.3%	25.2%	16.7%	100.0%
총계	개수	1330	1580	1456	1474	5840
	지역내%	22.8%	27.1%	24.9%	25.2%	100.0%

상별점을 주는 기준이 교사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93	137	76	38	344
	지역내%	27.0%	39.8%	22.1%	11.0%	100.0%
경기	개수	141	80	22	41	284
	지역내%	49.6%	28.2%	7.7%	14.4%	100.0%
경남	개수	155	161	71	68	455
	지역내%	34.1%	35.4%	15.6%	14.9%	100.0%
경북	개수	93	56	21	18	188
	지역내%	49.5%	29.8%	11.2%	9.6%	100.0%
광주	개수	98	94	58	80	330
	지역내%	29.7%	28.5%	17.6%	24.2%	100.0%
대구	개수	150	127	69	37	383

	지역내%	39.2%	33.2%	18.0%	9.7%	100.0%
대전	개수	143	77	17	35	272
	지역내%	52.6%	28.3%	6.3%	12.9%	100.0%
부산	개수	186	121	46	69	422
	지역내%	44.1%	28.7%	10.9%	16.4%	100.0%
서울	개수	215	159	65	77	516
	지역내%	41.7%	30.8%	12.6%	14.9%	100.0%
울산	개수	98	55	20	19	192
	지역내%	51.0%	28.6%	10.4%	9.9%	100.0%
인천	개수	210	151	55	37	453
	지역내%	46.4%	33.3%	12.1%	8.2%	100.0%
전남	개수	227	277	105	78	687
	지역내%	33.0%	40.3%	15.3%	11.4%	100.0%
전북	개수	99	108	50	33	290
	지역내%	34.1%	37.2%	17.2%	11.4%	100.0%
제주	개수	81	115	52	27	275
	지역내%	29.5%	41.8%	18.9%	9.8%	100.0%
충남	개수	144	172	82	53	451
	지역내%	31.9%	38.1%	18.2%	11.8%	100.0%
충북	개수	112	121	37	22	292
	지역내%	38.4%	41.4%	12.7%	7.5%	100.0%
총계	개수	2245	2011	846	732	5834
	지역내%	38.5%	34.5%	14.5%	12.5%	100.0%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18	57	144	125	344
	지역내%	5.2%	16.6%	41.9%	36.3%	100.0%
경기	개수	46	76	74	88	284
	지역내%	16.2%	26.8%	26.1%	31.0%	100.0%
경남	개수	39	107	170	139	455
	지역내%	8.6%	23.5%	37.4%	30.5%	100.0%
경북	개수	35	61	64	28	188
	지역내%	18.6%	32.4%	34.0%	14.9%	100.0%
광주	개수	44	104	108	74	330
	지역내%	13.3%	31.5%	32.7%	22.4%	100.0%
대구	개수	46	84	154	100	384
	지역내%	12.0%	21.9%	40.1%	26.0%	100.0%
대전	개수	48	94	81	49	272
	지역내%	17.6%	34.6%	29.8%	18.0%	100.0%
부산	개수	67	140	110	105	422
	지역내%	15.9%	33.2%	26.1%	24.9%	100.0%
서울	개수	49	106	177	184	516
	지역내%	9.5%	20.5%	34.3%	35.7%	100.0%

울산	개수	29	60	66	37	192
	지역내%	15.1%	31.3%	34.4%	19.3%	100.0%
인천	개수	62	114	166	110	452
	지역내%	13.7%	25.2%	36.7%	24.3%	100.0%
전남	개수	87	142	274	182	685
	지역내%	12.7%	20.7%	40.0%	26.6%	100.0%
전북	개수	34	62	107	86	289
	지역내%	11.8%	21.5%	37.0%	29.8%	100.0%
제주	개수	11	38	118	108	275
	지역내%	4.0%	13.8%	42.9%	39.3%	100.0%
충남	개수	34	92	179	147	452
	지역내%	7.5%	20.4%	39.6%	32.5%	100.0%
충북	개수	29	74	119	72	294
	지역내%	9.9%	25.2%	40.5%	24.5%	100.0%
총계	개수	678	1411	2111	1634	5834
	지역내%	11.6%	24.2%	36.2%	28.0%	100.0%

학교는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30	113	127	74	344
	지역내%	8.7%	32.8%	36.9%	21.5%	100.0%
경기	개수	66	101	68	49	284
	지역내%	23.2%	35.6%	23.9%	17.3%	100.0%
경남	개수	87	146	128	94	455
	지역내%	19.1%	32.1%	28.1%	20.7%	100.0%
경북	개수	67	69	36	16	188
	지역내%	35.6%	36.7%	19.1%	8.5%	100.0%
광주	개수	74	134	77	45	330
	지역내%	22.4%	40.6%	23.3%	13.6%	100.0%
대구	개수	69	116	134	65	384
	지역내%	18.0%	30.2%	34.9%	16.9%	100.0%
대전	개수	92	95	54	31	272
	지역내%	33.8%	34.9%	19.9%	11.4%	100.0%
부산	개수	118	178	79	47	422
	지역내%	28.0%	42.2%	18.7%	11.1%	100.0%
서울	개수	96	193	106	120	515
	지역내%	18.6%	37.5%	20.6%	23.3%	100.0%
울산	개수	61	63	40	28	192
	지역내%	31.8%	32.8%	20.8%	14.6%	100.0%
인천	개수	106	151	129	67	453
	지역내%	23.4%	33.3%	28.5%	14.8%	100.0%
전남	개수	132	236	192	125	685
	지역내%	19.3%	34.5%	28.0%	18.2%	100.0%

전북	개수	59	87	88	56	290
	지역내%	20.3%	30.0%	30.3%	19.3%	100.0%
제주	개수	24	76	93	80	273
	지역내%	8.8%	27.8%	34.1%	29.3%	100.0%
충남	개수	73	153	141	85	452
	지역내%	16.2%	33.8%	31.2%	18.8%	100.0%
충북	개수	43	95	113	42	293
	지역내%	14.7%	32.4%	38.6%	14.3%	100.0%
총계	개수	1197	2006	1605	1024	5832
	지역내%	20.5%	34.4%	27.5%	17.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36	100	123	85	344
	지역내%	10.5%	29.1%	35.8%	24.7%	100.0%
경기	개수	75	78	71	60	284
	지역내%	26.4%	27.5%	25.0%	21.1%	100.0%
경남	개수	110	138	128	79	455
	지역내%	24.2%	30.3%	28.1%	17.4%	100.0%
경북	개수	91	53	28	16	188
	지역내%	48.4%	28.2%	14.9%	8.5%	100.0%
광주	개수	98	91	98	43	330
	지역내%	29.7%	27.6%	29.7%	13.0%	100.0%
대구	개수	107	94	111	73	385
	지역내%	27.8%	24.4%	28.8%	19.0%	100.0%
대전	개수	144	76	32	20	272
	지역내%	52.9%	27.9%	11.8%	7.4%	100.0%
부산	개수	202	127	59	34	422
	지역내%	47.9%	30.1%	14.0%	8.1%	100.0%
서울	개수	125	161	119	109	514
	지역내%	24.3%	31.3%	23.2%	21.2%	100.0%
울산	개수	83	55	35	19	192
	지역내%	43.2%	28.6%	18.2%	9.9%	100.0%
인천	개수	165	139	94	55	453
	지역내%	36.4%	30.7%	20.8%	12.1%	100.0%
전남	개수	170	216	187	111	684
	지역내%	24.9%	31.6%	27.3%	16.2%	100.0%
전북	개수	81	68	86	54	289
	지역내%	28.0%	23.5%	29.8%	18.7%	100.0%
제주	개수	27	58	109	80	274
	지역내%	9.9%	21.2%	39.8%	29.2%	100.0%
충남	개수	93	137	129	93	452
	지역내%	20.6%	30.3%	28.5%	20.6%	100.0%
충북	개수	77	96	84	37	294

	지역내%	26.2%	32.7%	28.6%	12.6%	100.0%
총계	개수	1684	1687	1493	968	5832
	지역내%	28.9%	28.9%	25.6%	16.6%	100.0%

학교 규칙(교사의 생활지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강원	개수	31	157	130	26	344
	지역내%	9.0%	45.6%	37.8%	7.6%	100.0%
경기	개수	40	103	89	52	284
	지역내%	14.1%	36.3%	31.3%	18.3%	100.0%
경남	개수	46	136	182	91	455
	지역내%	10.1%	29.9%	40.0%	20.0%	100.0%
경북	개수	17	42	71	58	188
	지역내%	9.0%	22.3%	37.8%	30.9%	100.0%
광주	개수	36	140	106	48	330
	지역내%	10.9%	42.4%	32.1%	14.5%	100.0%
대구	개수	26	115	159	85	385
	지역내%	6.8%	29.9%	41.3%	22.1%	100.0%
대전	개수	30	62	86	94	272
	지역내%	11.0%	22.8%	31.6%	34.6%	100.0%
부산	개수	33	113	154	122	422
	지역내%	7.8%	26.8%	36.5%	28.9%	100.0%
서울	개수	49	177	193	97	516
	지역내%	9.5%	34.3%	37.4%	18.8%	100.0%
울산	개수	16	50	73	53	192
	지역내%	8.3%	26.0%	38.0%	27.6%	100.0%
인천	개수	55	120	173	103	451
	지역내%	12.2%	26.6%	38.4%	22.8%	100.0%
전남	개수	48	209	279	150	686
	지역내%	7.0%	30.5%	40.7%	21.9%	100.0%
전북	개수	33	88	103	65	289
	지역내%	11.4%	30.4%	35.6%	22.5%	100.0%
제주	개수	28	108	96	42	274
	지역내%	10.2%	39.4%	35.0%	15.3%	100.0%
충남	개수	38	155	180	78	451
	지역내%	8.4%	34.4%	39.9%	17.3%	100.0%
충북	개수	27	89	128	50	294
	지역내%	9.2%	30.3%	43.5%	17.0%	100.0%
총계	개수	553	1864	2202	1214	5833
	지역내%	9.5%	32.0%	37.8%	20.8%	100.0%

학생인권의 뜻과 내용 그리고 학생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받아본 적 있다	받아본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	학교 밖에서 따로 알아봤다	총계
강원	개수	43	115	173	11	342
	지역내%	12.6%	33.6%	50.6%	3.2%	100.0%
경기	개수	55	94	89	46	284
	지역내%	19.4%	33.1%	31.3%	16.2%	100.0%
경남	개수	45	199	171	40	455
	지역내%	9.9%	43.7%	37.6%	8.8%	100.0%
경북	개수	13	119	37	19	188
	지역내%	6.9%	63.3%	19.7%	10.1%	100.0%
광주	개수	78	102	118	32	330
	지역내%	23.6%	30.9%	35.8%	9.7%	100.0%
대구	개수	29	150	179	27	385
	지역내%	7.5%	39.0%	46.5%	7.0%	100.0%
대전	개수	17	171	59	25	272
	지역내%	6.3%	62.9%	21.7%	9.2%	100.0%
부산	개수	33	249	107	33	422
	지역내%	7.8%	59.0%	25.4%	7.8%	100.0%
서울	개수	69	238	158	49	514
	지역내%	13.4%	46.3%	30.7%	9.5%	100.0%
울산	개수	10	119	47	16	192
	지역내%	5.2%	62.0%	24.5%	8.3%	100.0%
인천	개수	48	239	126	39	452
	지역내%	10.6%	52.9%	27.9%	8.6%	100.0%
전남	개수	58	317	282	28	685
	지역내%	8.5%	46.3%	41.2%	4.1%	100.0%
전북	개수	42	99	129	19	289
	지역내%	14.5%	34.3%	44.6%	6.6%	100.0%
제주	개수	26	119	119	10	274
	지역내%	9.5%	43.4%	43.4%	3.6%	100.0%
충남	개수	68	182	180	17	447
	지역내%	15.2%	40.7%	40.3%	3.8%	100.0%
충북	개수	41	116	120	16	293
	지역내%	14.0%	39.6%	41.0%	5.5%	100.0%
총계	개수	675	2628	2094	427	5824
	지역내%	11.6%	45.1%	36.0%	7.3%	100.0%

2014 전국 학생 인권 실태조사

본 조사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학생인권침해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결과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만들기 위한 활동에 활용되니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안전하게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기간: 2014.09.13~10.6 / 참여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 문의: 02-365-5412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1. 최근 1년간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하셨습니다가?

질문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1)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2)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옆드려뺨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3) 교사의 언어폭력				
4) 머리 길이에 대한 규제				
5) 머리 색깔이나 모양(염색 등)에 대한 규제				
6)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한 규제				
7)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하게 하는 것				
8)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성적(점수, 등수) 공개나, 성적을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것				

2. 최근 1년간 학교, 학원, 집에서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기합 포함)이나 언어폭력(욕설, 막말)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3번 이상 ③일주일에 1~2번 ④한달에 1~2번 ⑤아주 가끔 ⑥전혀 없다.
2) 학원, 과외, 공부방 등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기합 포함)이나 언어폭력(욕설, 막말)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3번 이상 ③일주일에 1~2번 ④한달에 1~2번 ⑤아주 가끔 ⑥전혀 없다.
3) 집에서 보호자들에 체벌(기합 포함)이나 언어폭력(욕설, 막말)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①거의 매일 ②일주일에 3번 이상 ③일주일에 1~2번 ④한달에 1~2번 ⑤아주 가끔 ⑥전혀 없다.

3. 학생 참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교칙을 고치거나, 만들 때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				
2)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하면 잘 반영된다.				
3) 교사나 학교에 의견을 말할 때 혼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펴낸날 2014년 10월 28일

펴낸곳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메일: hws3388@gmail.com I 전화: 02)365-5412
